2020학년도 학생생활보고서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목 차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연구방법	3
제 1 절 조사대상 표집 및 자료수집.....	3
제 2 절 조사내용.....	4
제 3 절 자료분석 방법.....	5
제 3 장 연구 결과 분석	6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6
제 2 절 생활환경 관련 사항.....	12
제 3 절 대학생활 관련 사항.....	16
제 4 절 학업 및 진로 관련 사항.....	25
제 5 절 진로 및 취업 관련 사항.....	43
제 6 절 일상생활 관련 사항.....	54
제 7 절 성관련 문제.....	62
제 8 절 학생상담센터 관련 문제.....	76
제 4 장 요약 및 결론	84
제 1 절 요약.....	84
제 2 절 결론.....	90
부 록 2020 목원대학교 신입생 · 재학생 실태조사 설문지.....	92

표 목 차

CONTENTS

<표 2-1> 단과대학별 학생 수 및 조사완료 수	3
<표 2-2> 조사내용	4
<표 3-1> 성별 및 소속	6
<표 3-2> 학년	7
<표 3-3> 종교	8
<표 3-4> 출신 고등학교 유형	9
<표 3-5>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10
<표 3-6> 재수 경험	11
<표 3-7> 현재 거주 형태	12
<표 3-8> 주된 통학방법	13
<표 3-9>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14
<표 3-10>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15
<표 3-11> 대학생활 중 하고 싶은 일	16
<표 3-12>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	17
<표 3-13>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	18
<표 3-13-1>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19
<표 3-14> 대학생활 중 예상되거나 경험한 어려움	20
<표 3-15> 학교에 기대하는 점	21
<표 3-16>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22
<표 3-17> 전공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점	23
<표 3-18> 소속학과에 대한 소속감 정도	24
<표 3-19> 전공학부(과)를 선택한 동기	25
<표 3-20> 전공학부(학과)의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한 인지도	26
<표 3-21> 전공학부(학과)에 대한 확신	27
<표 3-22>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	28
<표 3-22-1>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	29
<표 3-22-2> 전공학부(과)가 맞지 않을 경우의 선택방법	30
<표 3-23>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	31

표 목 차

CONTENTS

<표 3-23-1> 복수전공이나 전과 선택	32
<표 3-23-2> 복수전공이나 전과의 이유	33
<표 3-24> 편입에 대한 고민	34
<표 3-24-1>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1순위)	35
<표 3-24-2>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2순위)	36
<표 3-24-3>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3순위)	37
<표 3-25> 자퇴에 대한 고민	38
<표 3-25-1> 자퇴 고민 시기	39
<표 3-25-2>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1순위)	40
<표 3-25-3>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2순위)	41
<표 3-25-4>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3순위)	42
<표 3-26> 대학 졸업 후 진로 결정 여부	43
<표 3-26-1>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	44
<표 3-26-2> 대학 졸업 후 계획	45
<표 3-27> 희망 취업분야	46
<표 3-27-1> 희망 취업분야 이유(1순위)	47
<표 3-27-2> 희망 취업분야 이유(2순위)	48
<표 3-27-3> 희망 취업분야 이유(3순위)	49
<표 3-28> 진로/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	50
<표 3-29> 취업관련 정보습득의 경로	51
<표 3-30> 취업관련 상담 희망 대상	52
<표 3-31> 취업준비 시기	53
<표 3-32> 최근 경험한 심리적 상태	54
<표 3-33>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만족도	55
<표 3-33-1>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56
<표 3-34>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 정도	57
<표 3-35> 대인관계 만족도	58
<표 3-35-1> 대인관계 불만족 이유	59
<표 3-36> 현재 고민하는 문제	60
<표 3-37> 고민 의논상대	61

표 목 차

CONTENTS

<표 3-38>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의 허용범위	62
<표 3-39> 성(교)에 대한 생각	63
<표 3-40>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	64
<표 3-41> 성관계 경험	65
<표 3-41-1> 성관계 시 피임여부	66
<표 3-42> 동거에 대한 생각	67
<표 3-43>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험	68
<표 3-43-1>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종류	69
<표 3-43-2>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경험 장소	70
<표 3-43-3>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	71
<표 3-43-4>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	72
<표 3-44> 교내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심각도	73
<표 3-45>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74
<표 3-46> 희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의 내용	75
<표 3-47>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76
<표 3-47-1>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77
<표 3-48> 학생상담센터 이용도	78
<표 3-49>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향	79
<표 3-49-1> 학생상담센터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	80
<표 3-50>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고 싶은 내용	81
<표 3-51> 학생상담센터에서 기대하고 참여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82
<표 3-52>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설되기 희망하는 프로그램	8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학생생활보고서는 재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경제적 현황, 대학생활, 진로 및 취업, 정신건강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돌리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를 파악하여 학생생활 지도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대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매년 학기초에 시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생활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2020년 한해는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태조사를 2학기에 대면수업에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학에서는 수용자 중심 즉 학생 중심 대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생활진로·학업·학교적응·일상생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적응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기에 대학에서도 흐름에 맞는 세밀한 관심과 정확한 조사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꿈꾸며 다양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기대감 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 대학생활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입생들이 새로운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것 보다 낮은 환경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입생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재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 개인의 준비뿐 아니라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학생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재학생실태조사는 기존의 학생상담센터와 취창업지원단 등 연계부서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많은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에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2020년도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졸업을 앞두고 있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대학만족도, 전공/학과(부) 만족도, 학업 및 진로, 심리적 어려움, 성의식에 대한 견해,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대학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8개 단과대학 및 48개 학과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0년도의 학생생활보고서의 내용은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대학생활 및 학업과 관련된 사항, 정서·심리 및 의식관련 사항,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사항, 성관련 사항 및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자료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지도하는 학과(부) 교수 및 조교, 학생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들의 새로운 대학생활 적응에 조력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대학적응, 진로선택, 대인관계, 심리적 문제 등 중요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대학생활(휴학, 재수 및 편입, 고민하는 문제, 의논상대), 학업관련 사항(학업부담감 정도, 학업스트레스 정도, 학습내용), 심리·정서 및 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효율적인 학생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학생들의 특성과 이성교제, 성에 대하여 조사된 결과를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생활실태와 가치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취업준비 시기, 취업정보 획득 경로)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학과(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상담 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고민뿐 아니라 성문제 등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적응을 위한 상담프로그램과 진로와 관련된 학생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진로적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 표집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20년 현재 본교의 48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각 학과별로 신입생 전원, 각 학부(과)의 신입생 인원과 동일한 인원의 재학생으로 응답자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설문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각 학과(부)에서 근무하는 조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자가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각 학과(부)의 조교가 취합하여 학생상담센터로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배포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전환되어 2020년 1학기 초에 실시할 수 없어 2020년 2학기 10월 초부터 시작되었고, 설문지 수거는 11월 중순까지 실시되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입력 및 분석은 그 이후에 진행되어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정리가 12월 말에 완료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288명 중 288명이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완료율은 100%이다. 단과대학별 조사대상인원과 조사완료율은 <표 2-1>과 같다.

<표 2-1> 단과대학별 학생 수 및 조사완료 수

구 분	조사인원	자료분석대상	조사완료율
신학대학	31	31	100%
문화콘텐츠대학	45	45	100%
테크노과학대학	33	33	100%
공과대학	61	61	100%
사회과학대학	19	19	100%
음악대학	28	28	100%
미술,디자인대학	37	37	100%
사범대학	34	34	100%
전 체	288	288	100%

제 2 절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인적사항, 생활환경, 대학생활, 학업 및 진로(전공학부(과)) 관련 사항/ 복수전공, 편입 및 자퇴 등) 취업관련, 일상생활 관련, 성관련 문제, 학생상담센터 관련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조사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조사내용

항 목	세부 문항	
인적사항	소속, 성별, 학년, 종교, 출신 고교 유형, 출신 고교 소재지, 재수 경험	
생활환경	거주형태, 통학방법, 등록금 부담자, 가정에서의 어려움	
대학생활	대학생활 중 하고 싶은 일, 대학생활 중 알고 싶은 일, 입학에 대한 만족도, 입학에 대한 불만족 이유,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어려움, 학교에 기대하는 부분,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전공교수님에게 기대하는 부분	
학업 및 진로	전공학부(과) 관련	전공학부(과) 지원 동기,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한 인식도, 전공학부(과)에 대한 확신정도,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 전공학부(과) 불만족 이유, 전공학부(과)에 대한 소속감 정도
	복수전공, 편입, 자퇴 등	복수전공이나 전과에 대한 의향, 복수전공이나 전과의 이유, 편입에 대한 고민 여부, 편입에 대한 고민 이유, 자퇴에 대한 고민 여부, 자퇴에 대한 고민을 한 시기, 자퇴에 대한 고민 이유
취업관련	진로에 대한 결정부분, 졸업 후 계획, 희망하는 취업분야, 희망하는 취업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진로/취업과 관련해 학교에 바라는 점, 취업관련 정보습득 경로, 취업관련 상담 대상, 취업준비 시기	
일상생활 관련	최근 3개월간 심리상태,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만족도, 외모와 성격에 대한 불만족 이유, 생각과 감정 표현정도,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불만족 이유, 현재 고민하는 문제, 고민 시 의논상대	
성관련 문제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허용정도, 성관계에 대한 생각,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 성관계 경험, 피임여부, 동거에 대한 생각, 성적 괴롭힘 경험(종류, 장소, 가해자, 대처), 성적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 인식정도, 성적 괴롭힘 대처방법 인식정도, 희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내용	
학생상담센터 관련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인식이 없는 이유, 이용횟수, 고민 시 학생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생각, 학생상담센터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 희망하는 상담내용, 참여하기 원하는 상담프로그램, 개설되기 희망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조사 완료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에 일관성이 없어 분석에 부적합 사례는 제외되었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Excel을 통한 통계분석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제 3 장 연구 결과 분석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응답자의 소속학과, 성별, 학년, 종교, 졸업한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재수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먼저 성별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응답자 288명 중 남학생(137명) 47.5%와 여학생(151명) 52.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과는 사회과학대학(84.3%), 사범대학(70.5%), 미술·디자인대학(64.9%), 문화콘텐츠대학(6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 중 공과대학(78.6%), 신학대(51.6%), 테크노과학대학(51.5%)이 남학생이 여학생 응답자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성별 및 소속

N(%)

구분	남	여	합계
신학대학	16 (51.6)	15 (48.4)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6 (35.5)	29 (64.5)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7 (51.5)	16 (48.5)	33 (100.0)
공과대학	48 (78.6)	13 (21.4)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7)	16 (84.3)	19 (100.0)
음악대학	14 (50.0)	14 (50.0)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3 (35.1)	24 (64.9)	37 (100.0)
사범대학	10 (29.5)	24 (70.5)	34 (100.0)
전체	137 (47.5)	151 (52.5)	288 (100.0)

응답자의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이 25.7%, 3학년이 17.0%, 2학년이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 실태조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학년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대면수업으로 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실시율이 상당수 감소되었음을 밝혀둔다.

학년별 분포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은 14.6%, 3학년은 19.0%, 4학년은 27%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이 14.6%, 3학년이 15.2%, 4학년이 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응답자의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응답자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단과대학은 사범대학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단과대학도 대부분 1학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 학년

N(%)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합계
전체		122 (42.4)	42 (14.6)	49 (17.0)	74 (25.7)	1 (0.3)	288 (100.0)
성별	남자	53 (38.7)	20 (14.6)	26 (19.0)	37 (27.0)	1 (0.7)	137 (100.0)
	여자	69 (45.7)	22 (14.6)	23 (15.2)	37 (24.5)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2 (38.7)	10 (32.3)	5 (16.1)	4 (12.9)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1 (24.4)	9 (20.0)	10 (22.2)	15 (33.3)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8 (54.5)	5 (15.2)	3 (9.1)	7 (21.2)		33 (100.0)
	공과대학	20 (32.8)	4 (6.6)	11 (18.0)	25 (41.0)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5 (26.3)	3 (15.8)	6 (31.6)	5 (26.3)		19 (100.0)
	음악대학	11 (39.3)	3 (10.7)	2 (7.1)	12 (42.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23 (62.2)	4 (10.8)	7 (18.9)	3 (8.1)		37 (100.0)
	사범대학	22 (64.7)	4 (11.8)	5 (14.7)	3 (8.8)		34 (100.0)

응답자의 종교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3>와 같다. 응답자의 종교 중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1명으로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기독교(34.7%), 불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개신교(93.5%)라고 응답하였으며, 타 학과와는 달리 음악대학에는 종교가 개신교(60.7%)라고 응답한 학생이 종교가 ‘없음’(21.4%)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종교

N(%)

구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없음	기타	합계
전체		100 (34.7)	8 (2.8)	16 (5.6)	2 (0.7)	151 (52.4)	11 (3.8)	288 (100.0)
성별	남자	53 (38.7)	3 (2.2)	7 (5.1)	1 (0.7)	70 (51.1)	3 (2.2)	137 (100.0)
	여자	47 (31.1)	5 (3.3)	9 (6.0)	1 (0.7)	81 (53.6)	8 (5.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9 (93.5)		1 (3.2)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5 (33.3)	3 (6.7)	3 (6.7)		21 (46.7)	3 (6.7)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7 (21.2)		3 (9.1)	2 (6.1)	21 (63.6)		33 (100.0)
	공과대학	13 (21.3)		2 (3.3)		45 (73.8)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5 (26.3)				12 (63.2)	2 (10.5)	19 (100.0)
	음악대학	17 (60.7)	2 (7.1)	2 (7.1)		6 (21.4)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 (8.1)		2 (5.4)		31 (83.8)	1 (2.7)	37 (100.0)
	사범대학	11 (32.4)	3 (8.8)	3 (8.8)		15 (44.1)	2 (5.9)	34 (100.0)

응답자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 중 ‘인문계고’가 249명(8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계고’와 ‘검정고시’가 10명(3.5%), 예체능계, 기타 8명(2.8%), ‘특수목적고’ 3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출신 고등학교 유형이 ‘인문계고’가 미술디자인대학은 94.6%, 문화콘텐츠대학은 93.3%로 나타나고 있으나 눈여겨 볼만한 사항으로는 타 단과대학에 비해 출신 고등학교 유형으로 ‘예체능계’가 미술·디자인대학은 5.4%로 ‘인문계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음악대학과 미술·디자인대학은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체능계 고등학교’ 출신인 재학생들의 비율이 타 단과대학의 수보다 높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출신 고등학교 유형

N(%)

구분		인문계고	예체능계	특수목적고	전문계고	검정고시	기타	합계
전체		249 (86.5)	8 (2.8)	3 (1.0)	10 (3.5)	10 (3.5)	8 (2.8)	288 (100.0)
성별	남자	118 (86.1)	3 (2.2)	3 (2.2)	3 (2.2)	6 (4.4)	4 (2.9)	137 (100.0)
	여자	131 (86.8)	5 (3.3)		7 (4.6)	4 (2.6)	4 (2.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1 (67.7)			4 (12.9)	2 (6.5)	4 (12.9)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42 (93.3)			1 (2.2)		2 (4.4)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9 (87.9)			1 (3.0)	3 (9.1)		33 (100.0)
	공과대학	55 (90.2)	1 (1.6)	2 (3.3)		1 (1.6)	2 (3.3)	61 (100.0)
	사회과학대학	16 (84.2)	1 (5.3)			2 (10.5)		19 (100.0)
	음악대학	21 (75.0)	2 (7.1)	1 (3.6)	3 (10.7)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5 (94.6)	2 (5.4)					37 (100.0)
	사범대학	30 (88.2)	2 (5.9)		1 (2.9)	1 (2.9)		34 (100.0)

응답자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지역이 전체 조사대상의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지역이 23.6%, 경기/인천 지역이 20.8%, 전라도 지역이 11.1%, 경상도 지역이 6.6%, 서울 지역이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응답자 중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대전인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지역은 신학대학의 재학생들이 51.6%로 가장 높고, 서울지역은 문화콘텐츠대학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인천지역은 테크노과학대학의 재학생들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5>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N(%)

구분		대전	충청도	서울	경기/ 인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합계
전체		90 (31.3)	68 (23.6)	11 (3.8)	60 (20.8)	32 (11.1)	19 (6.6)	8 (2.8)	288 (100.0)
성별	남자	38 (27.7)	29 (21.2)	7 (5.1)	42 (30.7)	14 (10.2)	5 (3.6)	2 (1.5)	137 (100.0)
	여자	52 (34.4)	39 (25.8)	4 (2.6)	18 (11.9)	18 (11.9)	14 (9.3)	6 (4.0)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5 (16.1)	16 (51.6)	1 (3.2)	2 (6.5)	2 (6.5)	3 (9.7)	2 (6.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7 (37.8)	10 (22.2)	3 (6.7)	9 (20.0)	3 (6.7)	2 (4.4)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8 (24.2)	6 (18.2)		12 (36.4)	1 (3.0)	6 (18.2)		33 (100.0)
	공과대학	23 (37.7)	11 (18.0)	4 (6.6)	17 (27.9)	5 (8.2)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8 (42.1)	4 (21.1)		2 (10.5)	4 (21.1)	1 (5.3)		19 (100.0)
	음악대학	10 (35.7)	10 (35.7)		4 (14.3)	3 (10.7)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2 (32.4)	5 (13.5)	1 (2.7)	5 (13.5)	10 (27.0)	1 (2.7)	3 (8.1)	37 (100.0)
	사범대학	7 (20.6)	6 (17.6)	2 (5.9)	9 (26.5)	4 (11.8)	4 (11.8)	2 (5.9)	34 (100.0)

응답자의 재수경험을 살펴보면 <표 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88.5%가 '재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3%가 '1년 재수', 2.4%의 학생이 '6개월 재수', 1.4%의 학생이 '2년' 혹은 '3년 재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미술·디자인대학과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1년 재수'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대학은 17.9%, 미술디자인대학은 10.8%로 단과대학에 비해 10.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재수 경험

N(%)

구분		없음	6개월	1년	2년	3년이상	합계
전체		255 (88.5)	7 (2.4)	18 (6.3)	4 (1.4)	4 (1.4)	288 (100.0)
성별	남자	123 (89.8)	3 (2.2)	9 (6.6)		2 (1.5)	137 (100.0)
	여자	132 (87.4)	4 (2.6)	9 (6.0)	4 (2.6)	2 (1.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30 (96.8)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41 (91.1)	1 (2.2)	2 (4.4)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9 (87.9)	2 (6.1)	1 (3.0)	1 (3.0)		33 (100.0)
	공과대학	58 (95.1)		3 (4.9)			61 (100.0)
	사회과학대학	16 (84.2)		1 (5.3)		2 (10.5)	19 (100.0)
	음악대학	21 (75.0)	1 (3.6)	5 (17.9)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0 (81.1)	2 (5.4)	4 (10.8)	1 (2.7)		37 (100.0)
	사범대학	30 (88.2)	1 (2.9)	2 (5.9)	1 (2.9)		34 (100.0)

제 2 절 생활환경 관련 사항

조사대상자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입학 후 거주형태, 통학방법, 대학 재학 중 통학방법,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현재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택인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자취(34.0%), 기숙사(19.4%), 하숙(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자택’이 38.7%로 자취 41.6%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자택’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취(27.2%), 기숙사(21.2%)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의 차이가 약 24.5%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입학 후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미술디자인대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미술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의 현재 거주 상태가 자택인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것과는 달리 자취하는 경우가 각각 4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택과 기숙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대학은 자택과 자취의 비율이 같이 나타났다.

<표 3-7> 현재 거주 형태

N(%)

구분		자택	하숙	자취	기숙사	합계
전체		131 (45.5)	3 (1.0)	98 (34.0)	56 (19.4)	288 (100.0)
성별	남자	53 (38.7)	3 (2.2)	57 (41.6)	24 (17.5)	137 (100.0)
	여자	78 (51.7)		41 (27.2)	32 (21.2)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3 (41.9)		11 (35.5)	7 (22.6)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4 (53.3)	1 (2.2)	13 (28.9)	7 (15.6)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0 (30.3)		10 (30.3)	13 (39.4)	33 (100.0)
	공과대학	30 (49.2)	1 (1.6)	23 (37.7)	7 (11.5)	61 (100.0)
	사회과학대학	15 (78.9)		2 (10.5)	2 (10.5)	19 (100.0)
	음악대학	12 (42.9)		12 (42.9)	4 (14.3)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3 (35.1)		16 (43.2)	8 (21.6)	37 (100.0)
	사범대학	14 (41.2)	1 (2.9)	11 (32.4)	8 (23.5)	34 (100.0)

응답자의 주된 통학방법을 살펴보면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보가 43.4%, 기타 4.5%, 스쿨버스 3.8%, 자가용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응답자의 출신학교의 소재지가 대전인 경우가 31.3%고, 거주형태가 자택인 경우가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 거주형태가 자취(34.0%)와 기숙사(19.4%)인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도보가 주된 학생들의 통학방법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8> 주된 통학방법

N(%)

구분		도보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자가용	스쿨버스	기타	합계
전체		125 (43.4)	131 (45.5)	8 (2.8)	11 (3.8)	13 (4.5)	288 (100.0)
성별	남자	70 (51.1)	53 (38.7)	4 (2.9)	5 (3.6)	5 (3.6)	137 (100.0)
	여자	55 (36.4)	78 (51.7)	4 (2.6)	6 (4.0)	8 (5.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9 (29.0)	18 (58.1)	1 (3.2)	1 (3.2)	2 (6.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7 (37.8)	23 (51.1)	1 (2.2)	4 (8.9)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8 (54.5)	12 (36.4)			3 (9.1)	33 (100.0)
	공과대학	32 (52.5)	24 (39.3)	1 (1.6)	2 (3.3)	2 (3.3)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8)	12 (63.2)	1 (5.3)	3 (15.8)		19 (100.0)
	음악대학	7 (25.0)	16 (57.1)	2 (7.1)	1 (3.6)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22 (59.5)	13 (35.1)			2 (5.4)	37 (100.0)
	사범대학	17 (50.0)	13 (38.2)	2 (5.9)		2 (5.9)	34 (100.0)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를 살펴보면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5%가 '부모'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학금'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11.5%, '본인'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8.7%,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6.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9>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N(%)

구분		본인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장학금	은행학자금대출	기타	합계
전체		25 (8.7)	203 (70.5)	1 (0.3)	1 (0.3)	33 (11.5)	20 (6.9)	5 (1.7)	288 (100.0)
성별	남자	15 (10.9)	99 (72.3)		1 (0.7)	10 (7.3)	11 (8.0)	1 (0.7)	137 (100.0)
	여자	10 (6.6)	104 (68.9)	1 (0.7)		23 (15.2)	9 (6.0)	4 (2.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8 (25.8)	13 (41.9)			8 (25.8)	1 (3.2)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6.7)	31 (68.9)			9 (20.0)	2 (4.4)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3 (9.1)	24 (72.7)			1 (3.0)	2 (6.1)	3 (9.1)	33 (100.0)
	공과대학	5 (8.2)	48 (78.7)			3 (4.9)	5 (8.2)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15 (78.9)	1 (5.3)		2 (10.5)			19 (100.0)
	음악대학	3 (10.7)	16 (57.1)			4 (14.3)	4 (14.3)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2 (86.5)		1 (2.7)	3 (8.1)	1 (2.7)		37 (100.0)
	사범대학	2 (5.9)	24 (70.6)			3 (8.8)	5 (14.7)		34 (100.0)

재학생들이 현재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가정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곤란'의 문제가 30.6%, '부모의 간섭과 통제' '가족의 기대'가 3.5%, '부모간의 불화'가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단과대학 중 신학과의 경우에는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곤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6%로 나타나 타 단과대학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N(%)

구분	경제적 곤란	부모간 의불화	형제간 의불화	가족들 의지나 친기대	부모의 간섭과 통제	가족의 질병	별어려 움없음	기타	합계	
전체	88 (30.6)	9 (3.1)	3 (1.0)	10 (3.5)	10 (3.5)	2 (0.7)	159 (55.2)	7 (2.4)	288 (100.0)	
성별	남자	51 (37.2)	4 (2.9)	1 (0.7)	5 (3.6)	6 (4.4)	1 (0.7)	65 (47.4)	4 (2.9)	137 (100.0)
	여자	37 (24.5)	5 (3.3)	2 (1.3)	5 (3.3)	4 (2.6)	1 (0.7)	94 (62.3)	3 (2.0)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6 (51.6)					14 (45.2)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1 (24.4)	3 (6.7)	1 (2.2)	1 (2.2)	4 (8.9)	1 (2.2)	22 (48.9)	2 (4.4)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9 (27.3)	1 (3.0)		1 (3.0)	2 (6.1)		20 (60.6)		33 (100.0)
	공과대학	18 (29.5)	2 (3.3)		3 (4.9)	3 (4.9)		32 (52.5)	3 (4.9)	61 (100.0)
	사회과학대학	7 (36.8)		2 (10.5)				10 (52.6)		19 (100.0)
	음악대학	10 (35.7)	1 (3.6)		1 (3.6)		1 (3.6)	14 (50.0)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9 (24.3)	1 (2.7)		3 (8.1)			24 (64.9)		37 (100.0)
	사범대학	8 (23.5)	1 (2.9)		1 (2.9)	1 (2.9)		23 (67.6)		34 (100.0)

제 3 절 대학생할 관련 사항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할 관련 사항으로는 대학생할 중 하고 싶은 것, 대학생할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 본 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할 중 예상되거나 혹은 경험한 어려운 점, 학교에 기대하는 부분, 활동 하고 싶은 동아리, 여가시간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재학생들이 대학생할 중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폭넓은 대인관계'와 '전공공부'가 21.5%, '해외여행 및 연수'가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폭넓은 대인관계'가 29.9%로 여학생 13.9%보다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공부'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27.8%가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14.6%로 응답하여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대학생할 중 하고 싶은 일 N(%)

구분	폭넓은대인관계	동아리활동	폭넓은교양습득	이성교제	취업및자격시험준비	전공공부	해외여행및연수	외국여공부	기타	합계	
전체	62 (21.5)	15 (5.2)	21 (7.3)	7 (2.4)	74 (25.7)	62 (21.5)	34 (11.8)	7 (2.4)	6 (2.1)	288 (100.0)	
성별	남자	41 (29.9)	9 (6.6)	11 (8.0)	7 (5.1)	35 (25.5)	20 (14.6)	9 (6.6)	2 (1.5)	3 (2.2)	137 (100.0)
	여자	21 (13.9)	6 (4.0)	10 (6.6)		39 (25.8)	42 (27.8)	25 (16.6)	5 (3.3)	3 (2.0)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8 (25.8)	1 (3.2)	5 (16.1)		2 (6.5)	11 (35.5)	3 (9.7)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6 (35.6)	1 (2.2)	2 (4.4)	2 (4.4)	13 (28.9)	6 (13.3)	3 (6.7)		2 (4.4)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5 (15.2)	5 (15.2)	1 (3.0)	1 (3.0)	11 (33.3)	2 (6.1)	4 (12.1)	1 (3.0)	3 (9.1)	33 (100.0)
	공과대학	17 (27.9)	6 (9.8)	3 (4.9)	1 (1.6)	17 (27.9)	9 (14.8)	6 (9.8)	1 (1.6)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1 (5.3)	3 (15.8)		10 (52.6)	1 (5.3)	2 (10.5)	1 (5.3)		19 (100.0)
	음악대학	5 (17.9)	1 (3.6)	1 (3.6)	1 (3.6)	6 (21.4)	9 (32.1)	4 (14.3)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6 (16.2)		1 (2.7)		11 (29.7)	11 (29.7)	7 (18.9)	1 (2.7)		37 (100.0)
	사범대학	4 (11.8)		5 (14.7)	2 (5.9)	4 (11.8)	13 (38.2)	5 (14.7)	1 (2.9)		34 (100.0)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으로는 ‘전공의 성격과 학문 내용 및 전망’이 103명(3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및 취업정보’가 78명(27.1%), ‘학사 및 학점관리’가 42명(14.6%),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정보’가 34명(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 중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정보’가 ‘전공의 성격과 학문내용 및 전망’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악대학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 등을 통해 전문적인 학업연장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과대학에서는 대학원이나 유학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3-12>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

N(%)

구분		전공의 성격과 학문 내용 및 전망	대학 내 각종 기관 및 시설의 활용 정보	학사 및 학점관리	아르바이트 및 취업정보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정보	합계
전체		103 (35.8)	31 (10.8)	42 (14.6)	78 (27.1)	34 (11.8)	288 (100.0)
성별	남자	50 (36.5)	13 (9.5)	24 (17.5)	40 (29.2)	10 (7.3)	137 (100.0)
	여자	53 (35.1)	18 (11.9)	18 (11.9)	38 (25.2)	24 (15.9)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5 (48.4)	4 (12.9)	4 (12.9)	4 (12.9)	4 (12.9)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7 (37.8)	6 (13.3)	5 (11.1)	13 (28.9)	4 (8.9)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8 (24.2)	3 (9.1)	6 (18.2)	9 (27.3)	7 (21.2)	33 (100.0)
	공과대학	20 (32.8)	6 (9.8)	7 (11.5)	23 (37.7)	5 (8.2)	61 (100.0)
	사회과학대학	6 (31.6)		4 (21.1)	7 (36.8)	2 (10.5)	19 (100.0)
	음악대학	12 (42.9)		4 (14.3)	5 (17.9)	7 (25.0)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4 (37.8)	4 (10.8)	4 (10.8)	11 (29.7)	4 (10.8)	37 (100.0)
	사범대학	11 (32.4)	8 (23.5)	8 (23.5)	6 (17.6)	1 (2.9)	34 (100.0)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하는 편이다'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가 37.5%, '매우 만족한다'가 10.8%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본교 입학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92.1%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불만족한 경우가 8%라고 볼 수 있겠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13>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

N(%)

구분		매우 불만이다	불만인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전체		4 (1.4)	19 (6.6)	108 (37.5)	126 (43.8)	31 (10.8)	288 (100.0)
성별	남자	2 (1.5)	10 (7.3)	57 (41.6)	53 (38.7)	15 (10.9)	137 (100.0)
	여자	2 (1.3)	9 (6.0)	51 (33.8)	73 (48.3)	16 (10.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3.2)	6 (19.4)	16 (51.6)	8 (25.8)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6.7)	16 (35.6)	17 (37.8)	9 (20.0)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3 (9.1)	2 (6.1)	16 (48.5)	11 (33.3)	1 (3.0)	33 (100.0)
	공과대학		6 (9.8)	27 (44.3)	26 (42.6)	2 (3.3)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10 (52.6)	8 (42.1)		19 (100.0)
	음악대학		4 (14.3)	11 (39.3)	12 (42.9)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17 (45.9)	16 (43.2)	3 (8.1)	37 (100.0)
	사범대학		2 (5.9)	5 (14.7)	20 (58.8)	7 (20.6)	34 (100.0)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서' 30.4%, '학교 규모 및 시설 부족'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가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서'와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미술,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 및 시설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술,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전공과목에서 다양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단과대학의 경우보다 학교 규모 및 시설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만족감이 낮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표 3-13-1>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N(%)

구분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서	기대했던 학과가 아니라서	학교 규모 및 시설 부족	기타	합계
전체		7 (30.4)	3 (13.0)	4 (17.4)	9 (39.1)	23 (100.0)
성별	남자	2 (16.7)	2 (16.7)	2 (16.7)	6 (50.0)	12 (100.0)
	여자	5 (45.5)	1 (9.1)	2 (18.2)	3 (27.3)	1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100.0)	1 (100.0)
	문화콘텐츠대 학	1 (33.3)	1 (33.3)	1 (33.3)		3 (100.0)
	테크노과학대 학		1 (20.0)		4 (80.0)	5 (100.0)
	공과대학	1 (16.7)	1 (16.7)	1 (16.7)	3 (50.0)	6 (100.0)
	사회과학대학	1 (100.0)				1 (100.0)
	음악대학	2 (50.0)		1 (25.0)	1 (25.0)	4 (100.0)
	미술.디자인대 학			1 (100.0)		1 (100.0)
	사범대학	2 (100.0)				2 (100.0)

대학생활 중 예상되거나 혹은 경험한 어려움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생활 중 ‘장래진로 및 취업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64명(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점 등 학업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48명(16.7%), ‘없음’이 16%,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13.9%, ‘대인 및 이성 관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14> 대학생활 중 예상되거나 경험한 어려움 N(%)

구분	학점 등의 학업 문제	신체 및정 신건 강문 제	대인 및이 성관 계문 제	숙식 문제	통학 문제	장래 진로 및취 업문 제	가정 문제	성격 문제	경제 적문 제	전공 및대 학생 활적 응문 제	병역 문제	별문 제없 음	기타	합계
전체	48 (16.7)	11 (3.8)	23 (8.0)	7 (2.4)	11 (3.8)	64 (22.2)	2 (0.7)	5 (1.7)	40 (13.9)	20 (6.9)	9 (3.1)	46 (16.0)	2 (0.7)	288 (100)
성별	남자	25 (18.2)	4 (2.9)	9 (6.6)	5 (3.6)	35 (25.5)	1 (0.7)	2 (1.5)	15 (10.9)	7 (5.1)	9 (6.6)	21 (15.3)	1 (0.7)	137 (100)
	여자	23 (15.2)	7 (4.6)	14 (9.3)	2 (1.3)	8 (5.3)	29 (19.2)	1 (0.7)	3 (2.0)	25 (16.6)	13 (8.6)	25 (16.6)	1 (0.7)	151 (100)
단과대학	신학대 학	3 (9.7)		4 (12.9)	1 (3.2)	2 (6.5)	4 (12.9)		10 (32.3)		1 (3.2)	5 (16.1)	1 (3.2)	31 (100)
	문화큰 텐츠대 학	11 (24.4)	3 (6.7)	8 (17.8)	1 (2.2)		5 (11.1)	2 (4.4)	4 (8.9)	5 (11.1)		5 (11.1)	1 (2.2)	45 (100)
	테크노 과학대 학	5 (15.2)		3 (9.1)		1 (3.0)	7 (21.2)		1 (3.0)	7 (21.2)	2 (6.1)	1 (3.0)	6 (18.2)	33 (100)
	공과대 학	9 (14.8)	3 (4.9)	2 (3.3)	3 (4.9)	4 (6.6)	14 (23.0)		1 (1.6)	8 (13.1)	4 (6.6)	2 (3.3)	11 (18.0)	61 (100)
	사회과 학대학	4 (21.1)	1 (5.3)	2 (10.5)	1 (5.3)		7 (36.8)			1 (5.3)		3 (15.8)		19 (100)
	음악대 학	1 (3.6)	2 (7.1)	2 (7.1)		2 (7.1)	10 (35.7)		1 (3.6)	4 (14.3)	1 (3.6)	2 (7.1)	3 (10.7)	28 (100)
	미술 디자인 대학	6 (16.2)	1 (2.7)	1 (2.7)		1 (2.7)	11 (29.7)		2 (5.4)	2 (5.4)	3 (8.1)	2 (5.4)	8 (21.6)	37 (100)
	사범대 학	9 (26.5)	1 (2.9)	1 (2.9)	1 (2.9)	1 (2.9)	6 (17.6)			5 (14.7)	4 (11.8)	1 (2.9)	5 (14.7)	34 (100)

대학생활에서 학교에 기대하는 부분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 내용 및 수업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64명(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 '취업 및 진로지도'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9명(17.0%),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12.8%, '교육시설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가 11.5%, '학교의 대외 이미지가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에서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의 경우에는 타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강의 내용 및 수업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 '취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학교에 기대하는 점

N(%)

구분	강의 내용 및 수업의 질 개선	면학 분위 기조 성	교육 시설 및 서비스 향상	복지 및 편의 시설 확충	취업 및 진로 지도	학교(캠퍼스)규모 확대	우수 교수의 확보	교양 및 문헌의 다양성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학생을 위한 상담 지원 확대	기숙사 증설	기타	합계	
전체	64 (22.2)	14 (4.9)	33 (11.5)	37 (12.8)	49 (17.0)	11 (3.8)	7 (2.4)	15 (5.2)	23 (8.0)	7 (2.4)	16 (5.6)	12 (4.2)	288 (100.0)	
성별	남자	21 (15.3)	4 (2.9)	14 (10.2)	20 (14.6)	24 (17.5)	9 (6.6)		10 (7.3)	14 (10.2)	3 (2.2)	11 (8.0)	7 (5.1)	137 (100.0)
	여자	43 (28.5)	10 (6.6)	19 (12.6)	17 (11.3)	25 (16.6)	2 (1.3)	7 (4.6)	5 (3.3)	9 (6.0)	4 (2.6)	5 (3.3)	5 (3.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2 (38.7)	3 (9.7)	2 (6.5)	6 (19.4)		2 (6.5)		1 (3.2)			2 (6.5)	3 (9.7)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8 (17.8)	4 (8.9)	4 (8.9)	4 (8.9)	12 (26.7)	2 (4.4)	2 (4.4)	4 (8.9)	2 (4.4)	1 (2.2)	1 (2.2)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4 (12.1)		4 (12.1)	6 (18.2)	4 (12.1)	2 (6.1)	2 (6.1)	2 (6.1)	4 (12.1)		3 (9.1)	2 (6.1)	33 (100.0)
	공과대학	11 (18.0)	2 (3.3)	9 (14.8)	9 (14.8)	8 (13.1)	2 (3.3)		2 (3.3)	5 (8.2)	2 (3.3)	8 (13.1)	3 (4.9)	61 (100.0)
	사회과학대학	6 (31.6)	1 (5.3)	1 (5.3)	3 (15.8)	4 (21.1)				2 (10.5)	2 (10.5)			19 (100.0)
	음악대학	5 (17.9)	2 (7.1)	3 (10.7)	2 (7.1)	6 (21.4)	1 (3.6)	2 (7.1)		4 (14.3)	1 (3.6)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7 (18.9)	1 (2.7)	5 (13.5)	4 (10.8)	11 (29.7)	2 (5.4)	1 (2.7)	1 (2.7)	2 (5.4)		2 (5.4)	1 (2.7)	37 (100.0)
	사범대학	11 (32.4)	1 (2.9)	5 (14.7)	3 (8.8)	4 (11.8)			5 (14.7)	4 (11.8)	1 (2.9)			34 (100.0)

대학생활에서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고 싶지 않음’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예·창작·예술분야’가 23.3%, ‘친목과 오락분야’가 14.6%, ‘체육 분야’가 13.5%, ‘종교분야’가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문예·창작·예술분야’가 31.1%, ‘하고 싶지 않음’이 25.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하고 싶지 않음’이 24.8%, ‘체육분야’에 있어서 21.9%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는 신학대학의 경우 ‘종교분야’의 동아리 활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54.8%), 미술·디자인 대학(56.8%)과 음악대학(35.7%)의 경우에는 문예·창작·예술분야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과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동아리활동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16>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N(%)

구분	학술 분야	체육 분야	종교 분야	친목 과오락 분야	봉사 분야	방송 국	문예·창작·예술 분야	사회 정치·이념 분야	하고 싶지 않다	기타	합계	
전체	9 (3.1)	39 (13.5)	25 (8.7)	42 (14.6)	21 (7.3)	8 (2.8)	67 (23.3)	2 (0.7)	72 (25.0)	3 (1.0)	288 (100.0)	
성별	남자	2 (1.5)	30 (21.9)	13 (9.5)	26 (19.0)	7 (5.1)	20 (14.6)	2 (1.5)	34 (24.8)	1 (0.7)	137 (100.0)	
	여자	7 (4.6)	9 (6.0)	12 (7.9)	16 (10.6)	14 (9.3)	6 (4.0)	47 (31.1)	38 (25.2)	2 (1.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 (6.5)	17 (54.8)	2 (6.5)		1 (3.2)	2 (6.5)	6 (19.4)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6.7)	2 (4.4)	9 (20.0)	12 (26.7)	1 (2.2)	7 (15.6)	1 (2.2)	10 (2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1)	13 (39.4)		4 (12.1)	1 (3.0)	1 (3.0)	3 (9.1)		8 (24.2)	1 (3.0)	33 (100.0)
	공과대학	2 (3.3)	10 (16.4)	2 (3.3)	15 (24.6)	3 (4.9)	1 (1.6)	10 (16.4)	1 (1.6)	16 (26.2)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3 (15.8)		1 (5.3)		4 (21.1)	3 (15.8)		6 (31.6)		19 (100.0)
	음악대학		4 (14.3)	2 (7.1)	3 (10.7)			10 (35.7)		9 (32.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6 (16.2)			21 (56.8)		9 (24.3)		37 (100.0)
	사범대학	3 (8.8)	3 (8.8)	2 (5.9)	2 (5.9)	5 (14.7)		11 (32.4)		8 (23.5)		34 (100.0)

대학생활 가운데 전공 교수님께 기대하는 점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찬 강의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및 취업상담과 지도 19.1%,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상담과 지도 15.6%, 인간적 관계 13.9%, 공정한 평가 9.4%, 연구 활동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경우 모두 '알찬 강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교수님께 기대하는 부분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보면 문화콘텐츠대학(28.9%)과 테크노과학대학(30.3%)은 전공 교수님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나타나 타 대학에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전공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점

N(%)

구분	총실하고알찬 강의	전공분야에대한연구활동	공정한평가	전공및학업에대한상담과지도	학생과인간적인관계	진로및취업에대한상담과지도	학과적응및개인적인생활문제이상담과지도	기타	합계
전체	91 (31.6)	19 (6.6)	27 (9.4)	45 (15.6)	40 (13.9)	55 (19.1)	9 (3.1)	2 (0.7)	288 (100.0)
성별	남자	38 (27.7)	12 (8.8)	20 (14.6)	23 (16.8)	25 (18.2)	5 (3.6)	2 (1.5)	137 (100.0)
	여자	53 (35.1)	7 (4.6)	15 (9.9)	25 (16.6)	17 (11.3)	30 (19.9)	4 (2.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5 (48.4)	2 (6.5)	2 (6.5)	2 (6.5)	5 (16.1)	2 (6.5)	2 (6.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3 (28.9)		4 (8.9)	5 (11.1)	6 (13.3)	13 (28.9)	4 (8.9)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0 (30.3)	2 (6.1)	4 (12.1)	2 (6.1)	4 (12.1)	10 (30.3)		33 (100.0)
	공과대학	17 (27.9)	7 (11.5)	4 (6.6)	12 (19.7)	10 (16.4)	9 (14.8)	2 (3.3)	61 (100.0)
	사회과학대학	5 (26.3)	1 (5.3)	5 (26.3)	3 (15.8)	1 (5.3)	4 (21.1)		19 (100.0)
	음악대학	8 (28.6)	4 (14.3)	1 (3.6)	9 (32.1)	1 (3.6)	5 (17.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1 (29.7)	2 (5.4)	5 (13.5)	4 (10.8)	6 (16.2)	9 (24.3)		37 (100.0)
	사범대학	12 (35.3)	1 (2.9)	2 (5.9)	8 (23.5)	7 (20.6)	3 (8.8)	1 (2.9)	34 (100.0)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부(과)에 대한 소속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다’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편이다’ 27.8%, ‘매우 높은 편이다’ 12.8%, 낮은 편이다’ 11.5%, ‘매우 낮은 편이다’ 3.8%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소속학과에 대한 소속감은 84.7%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18> 소속학과에 대한 소속감 정도

N(%)

구분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합계
전체		11 (3.8)	33 (11.5)	127 (44.1)	80 (27.8)	37 (12.8)	288 (100.0)
성별	남자	5 (3.6)	16 (11.7)	57 (41.6)	37 (27.0)	22 (16.1)	137 (100.0)
	여자	6 (4.0)	17 (11.3)	70 (46.4)	43 (28.5)	15 (9.9)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 (3.2)	1 (3.2)	11 (35.5)	9 (29.0)	9 (29.0)	31 (100.0)
	문화콘텐츠 대학	4 (8.9)	6 (13.3)	17 (37.8)	12 (26.7)	6 (13.3)	45 (100.0)
	테크노과학 대학	3 (9.1)	1 (3.0)	20 (60.6)	7 (21.2)	2 (6.1)	33 (100.0)
	공과대학		8 (13.1)	30 (49.2)	17 (27.9)	6 (9.8)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7 (36.8)	8 (42.1)	3 (15.8)		19 (100.0)
	음악대학		4 (14.3)	12 (42.9)	9 (32.1)	3 (10.7)	28 (100.0)
	미술·디자인 대학	2 (5.4)	4 (10.8)	19 (51.4)	7 (18.9)	5 (13.5)	37 (100.0)
	사범대학		2 (5.9)	10 (29.4)	16 (47.1)	6 (17.6)	34 (100.0)

제 4 절

학업 및 진로 관련 사항

1) 전공학부(과) 관련 사항

조사대상자의 학업 및 진로 관련 사항 중 전공학부(과) 관련 사항으로는 전공학부(과) 지원 동기,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한 인식도, 전공학부(과)에 대한 확신정도,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 전공학부(과) 불만족 이유, 전공학부(과)에 대한 소속정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가 전공학부(과)를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면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전망'이 11.1%,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가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19> 전공학부(과)를 선택한 동기

N(%)

구분		적성과흥미	성적에맞춰서	주위의권유나압력	취업전망	우수한교수진	기타	합계
전체		202 (70.1)	26 (9.0)	18 (6.3)	32 (11.1)	4 (1.4)	6 (2.1)	288 (100.0)
성별	남자	92 (67.2)	13 (9.5)	10 (7.3)	17 (12.4)	3 (2.2)	2 (1.5)	137 (100.0)
	여자	110 (72.8)	13 (8.6)	8 (5.3)	15 (9.9)	1 (0.7)	4 (2.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7 (87.1)		1 (3.2)	1 (3.2)	1 (3.2)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33 (73.3)	2 (4.4)	7 (15.6)	1 (2.2)	1 (2.2)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0 (60.6)	6 (18.2)		7 (21.2)			33 (100.0)
	공과대학	35 (57.4)	10 (16.4)	5 (8.2)	9 (14.8)	1 (1.6)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11 (57.9)	4 (21.1)		3 (15.8)		1 (5.3)	19 (100.0)
	음악대학	23 (82.1)	1 (3.6)	3 (10.7)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28 (75.7)	2 (5.4)	1 (2.7)	6 (16.2)			37 (100.0)
	사범대학	25 (73.5)	1 (2.9)	1 (2.9)	4 (11.8)	1 (2.9)	2 (5.9)	34 (100.0)

조사대상자가 선택한 전공학과(부)의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알고 있다'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가 36.5%, '매우 잘 알고 있다'가 9.4%, '알지 못하는 편이다'가 7.3%, '전혀 알지 못한다'가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다'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알지 못하는 편이다'가 0%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문화콘텐츠대학의 경우 '잘 알고 있다'가 53.3%, '알지 못하는 편이다'가 2%로 나타났으며, 사범대학의 경우 '잘 알고 있다'가 52.9%, '알지 못하는 편이다'가 0%로 나타나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한 인식도가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테크노과학대와 미술디자인대학, 공과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전공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으로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0> 전공학부(학과)의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한 인지도 N(%)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전체		5 (1.7)	21 (7.3)	105 (36.5)	130 (45.1)	27 (9.4)	288 (100.0)
성별	남자	1 (0.7)	10 (7.3)	54 (39.4)	58 (42.3)	14 (10.2)	137 (100.0)
	여자	4 (2.6)	11 (7.3)	51 (33.8)	72 (47.7)	13 (8.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3.2)		6 (19.4)	18 (58.1)	6 (19.4)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2.2)	2 (4.4)	16 (35.6)	24 (53.3)	2 (4.4)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1)	5 (15.2)	12 (36.4)	11 (33.3)	3 (9.1)	33 (100.0)
	공과대학		8 (13.1)	28 (45.9)	22 (36.1)	3 (4.9)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6 (31.6)	10 (52.6)	1 (5.3)	19 (100.0)
	음악대학		2 (7.1)	10 (35.7)	13 (46.4)	3 (10.7)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2 (5.4)	17 (45.9)	14 (37.8)	3 (8.1)	37 (100.0)
	사범대학			10 (29.4)	18 (52.9)	6 (17.6)	34 (100.0)

조사대상자가 선택한 전공학과(부)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다’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고함’이 34.4%, ‘매우 확고함’이 18.8%, ‘확고하지 않음’이 6.6%, ‘전혀 확고하지 않음’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확고함’ 41.9%와 ‘매우 확고함’이 35.5%로 타 단과대학과 비교할 때 매우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선택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21> 전공학부(학과)에 대한 확신

N(%)

구분		전혀 확고하지 않음	확고하지 않음	보통이다	확고함	매우 확고함	합계
전체		5 (1.7)	19 (6.6)	111 (38.5)	99 (34.4)	54 (18.8)	288 (100.0)
성별	남자	4 (2.9)	10 (7.3)	50 (36.5)	52 (38.0)	21 (15.3)	137 (100.0)
	여자	1 (0.7)	9 (6.0)	61 (40.4)	47 (31.1)	33 (21.9)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 (3.2)		6 (19.4)	13 (41.9)	11 (35.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2.2)	6 (13.3)	15 (33.3)	17 (37.8)	6 (13.3)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0)	3 (9.1)	16 (48.5)	11 (33.3)	2 (6.1)	33 (100.0)
	공과대학	1 (1.6)	5 (8.2)	30 (49.2)	20 (32.8)	5 (8.2)	61 (100.0)
	사회과학대학			9 (47.4)	6 (31.6)	4 (21.1)	19 (100.0)
	음악대학	1 (3.6)	4 (14.3)	6 (21.4)	8 (28.6)	9 (32.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9 (51.4)	12 (32.4)	6 (16.2)	37 (100.0)
	사범대학		1 (2.9)	10 (29.4)	12 (35.3)	11 (32.4)	34 (100.0)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하는 편이다’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1.9%,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가 18.1%, ‘불만족’이 5.2%, ‘매우 불만족’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단과대학은 사범대학의 경우는 ‘매우 만족한다’가 50%, ‘만족한다’가 26.5%로 학부(과)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가 76.5%로 단과대학 중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74.2%, 문화콘텐츠대학의 경우에는 62.2%로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22>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

N(%)

구분		매우 불만족하다	불만족하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합계
전체		4 (1.4)	15 (5.2)	92 (31.9)	125 (43.4)	52 (18.1)	288 (100.0)
성별	남자	3 (2.2)	7 (5.1)	46 (33.6)	57 (41.6)	24 (17.5)	137 (100.0)
	여자	1 (0.7)	8 (5.3)	46 (30.5)	68 (45.0)	28 (18.5)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3.2)	1 (3.2)	6 (19.4)	14 (45.2)	9 (29.0)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 (4.4)	15 (33.3)	19 (42.2)	9 (20.0)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0)	1 (3.0)	14 (42.4)	15 (45.5)	2 (6.1)	33 (100.0)
	공과대학		7 (11.5)	21 (34.4)	26 (42.6)	7 (11.5)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1 (5.3)	7 (36.8)	10 (52.6)		19 (100.0)
	음악대학	1 (3.6)	2 (7.1)	9 (32.1)	11 (39.3)	5 (17.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3 (35.1)	21 (56.8)	3 (8.1)	37 (100.0)
	사범대학		1 (2.9)	7 (20.6)	9 (26.5)	17 (50.0)	34 (100.0)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불만족하다’와 ‘불만족하다’에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22-1>와 같이 ‘전망이 밝지 않아서’, ‘기타’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교수진에 대한 불만’이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는 단과대학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문화콘텐츠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전망이 밝지 않아서’가 100%, 신학대학은 ‘기타’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테크노과학대의 경우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교수진에 대한 불만’(5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단과대학별로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의 중도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2-1>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

N(%)

구분		적성에맞지 않아서	전망이밝지 않아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교수진에대 한불만	기타	합계
전체		3 (15.8)	6 (31.6)	1 (5.3)	3 (15.8)	6 (31.6)	19 (100.0)
성 별	남자	2 (20.0)	4 (40.0)		1 (10.0)	3 (30.0)	10 (100.0)
	여자	1 (11.1)	2 (22.2)	1 (11.1)	2 (22.2)	3 (33.3)	9 (100.0)
단 과 대 학	신학대학					2 (100.0)	2 (100.0)
	문화콘텐츠대학		2 (100.0)				2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공과대학	2 (28.6)			1 (14.3)	4 (57.1)	7 (100.0)
	사회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음악대학		2 (66.7)		1 (33.3)		3 (100.0)
	미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1 (100.0)				1 (100.0)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부(과)가 맞지 않을 경우의 선택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22-2>와 같이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함’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직 모르겠음’이 21.1%,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기회를 살리도록 함’, ‘편입’, ‘기타’ 10.5%, ‘전과’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경우에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공과대학,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도록 함’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2-2> 전공학부(과)가 맞지 않을 경우의 선택방법

N(%)

구분		그냥 적응하도록 노력함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도록 함	본교 내에서 원하는 학과로 전과	졸업 전 또는 후에 국내 다른 대학으로 편입	아직 모르겠음	기타	합계
전체		8 (42.1)	2 (10.5)	1 (5.3)	2 (10.5)	4 (21.1)	2 (10.5)	19 (100.0)
성별	남자	3 (30.0)	2 (20.0)	1 (10.0)		3 (30.0)	1 (10.0)	10 (100.0)
	여자	5 (55.6)			2 (22.2)	1 (11.1)	1 (11.1)	9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 (100.0)	2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50.0)	1 (50.0)			2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공과대학	5 (71.4)				2 (28.6)		7 (100.0)
	사회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음악대학	2 (66.7)				1 (33.3)		3 (100.0)
	미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1 (100.0)					1 (100.0)

2) 복수전공 및 편입, 자퇴에 관한 사항

조사대상자의 학업 및 진로 관련 사항 중 복수전공이나 전과에 대한 의향, 편입에 대한 고민 여부, 편입에 대한 고민 이유, 자퇴에 대한 고민 여부, 자퇴에 대한 고민을 한 시기, 자퇴에 대한 고민 이유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조사대상자의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 29.5%, ‘있다’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이 없다’가 46.4%,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이 있다’가 21.4%로 나타나 타 단과대학에 비해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23>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

N(%)

구분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체		37 (12.8)	166 (57.6)	85 (29.5)	288 (100.0)
성별	남자	15 (10.9)	77 (56.2)	45 (32.8)	137 (100.0)
	여자	22 (14.6)	89 (58.9)	40 (26.5)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6 (19.4)	17 (54.8)	8 (25.8)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9 (20.0)	21 (46.7)	15 (33.3)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1)	17 (51.5)	14 (42.4)	33 (100.0)
	공과대학	6 (9.8)	40 (65.6)	15 (24.6)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13 (68.4)	5 (26.3)	19 (100.0)
	음악대학	6 (21.4)	13 (46.4)	9 (32.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4 (10.8)	19 (51.4)	14 (37.8)	37 (100.0)
	사범대학	3 (8.8)	26 (76.5)	5 (14.7)	34 (100.0)

조사대상자의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37명을 대상으로 복수전공이나 전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는 <표 3-23-1>과 같이 ‘복수전공’이 91.9%, ‘전과’ 8.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테크노과학대학의 경우는 ‘복수전공’ 50%, ‘전과’ 50%로 타 단과대학보다 ‘복수전공’과 ‘전과’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3-1> 복수전공이나 전과 선택

N(%)

구분		복수전공	전과	합계
전체		34 (91.9)	3 (8.1)	37 (100.0)
성별	남자	12 (80.0)	3 (20.0)	15 (100.0)
	여자	22 (100.0)		22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6 (100.0)		6 (100.0)
	문화콘텐츠대학	8 (88.9)	1 (11.1)	9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공과대학	5 (83.3)	1 (16.7)	6 (100.0)
	사회과학대학	1 (100.0)		1 (100.0)
	음악대학	6 (100.0)		6 (100.0)
	미술·디자인대학	4 (100.0)		4 (100.0)
	사범대학	3 (100.0)		3 (100.0)

조사대상자의 복수전공이나 전과의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3-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넓고 다양한 공부를 위하여’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과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18.9%,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8%,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학과여서’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사회과학대학, 미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폭넓고 다양한 공부를 위하여’가 100%로 나타나 타 단과 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3-23-2> 복수전공이나 전과의 이유

N(%)

구분		학과에 만족하지만 마음에 드는 또다른 학과가 있어서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폭넓고 다양한 공부를 위하여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학과여서	합계
전체		7 (18.9)	4 (10.8)	25 (67.6)	1 (2.7)	37 (100.0)
성별	남자	3 (20.0)	2 (13.3)	10 (66.7)		15 (100.0)
	여자	4 (18.2)	2 (9.1)	15 (68.2)	1 (4.5)	22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 (33.3)		4 (66.7)		6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11.1)	2 (22.2)	6 (66.7)		9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공과대학	3 (50.0)		2 (33.3)	1 (16.7)	6 (100.0)
	사회과학대학			1 (100.0)		1 (100.0)
	음악대학	1 (16.7)	1 (16.7)	4 (66.7)		6 (100.0)
	미술·디자인대학			4 (100.0)		4 (100.0)
	사범대학			3 (100.0)		3 (100.0)

조사대상자의 편입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24>에서와 같이, ‘아니오’ 66.3%, ‘예’ 33.7%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테크노과학대학의 경우 편입에 대해 51.5%로 나타나 타 단과대학에 비해 편입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편입에 대한 고민

N(%)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97 (33.7)	191 (66.3)	288 (100.0)
성별	남자	46 (33.6)	91 (66.4)	137 (100.0)
	여자	51 (33.8)	100 (66.2)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7 (22.6)	24 (77.4)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7 (37.8)	28 (6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7 (51.5)	16 (48.5)	33 (100.0)
	공과대학	23 (37.7)	38 (62.3)	61 (100.0)
	사회과학대학	9 (47.4)	10 (52.6)	19 (100.0)
	음악대학	13 (46.4)	15 (5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6 (16.2)	31 (83.8)	37 (100.0)
	사범대학	5 (14.7)	29 (85.3)	34 (100.0)

조사대상자 중 편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고민하는 1순위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4-1>과 같다. 우선,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15.5%, ‘진로/취업의 문제’ 14.4%, ‘통학문제’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100%로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77.8%로 가장 편입을 고민하게 하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의 1순위인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과의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전공수업과 혁신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표 3-24-1>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1순위)

N(%)

구분	통학문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대학생 활부적응	대인관계	진로/취업	경제적 문제	기타	합계
전체	11 (11.3)	48 (49.5)	15 (15.5)	2 (2.1)	2 (2.1)	14 (14.4)	4 (4.1)	1 (1.0)	97 (100.0)
성별	남자	5 (10.9)	25 (54.3)	8 (17.4)		1 (2.2)	5 (10.9)	2 (4.3)	46 (100.0)
	여자	6 (11.8)	23 (45.1)	7 (13.7)	2 (3.9)	1 (2.0)	9 (17.6)	2 (3.9)	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14.3)	2 (28.6)	2 (28.6)		1 (14.3)	1 (14.3)		7 (100.0)
	문화콘텐츠대학	4 (23.5)	5 (29.4)	2 (11.8)	1 (5.9)		4 (23.5)	1 (5.9)	17 (100.0)
	테크노과학대학		11 (64.7)	2 (11.8)			4 (23.5)		17 (100.0)
	공과대학	1 (4.3)	12 (52.2)	5 (21.7)		1 (4.3)	2 (8.7)	2 (8.7)	23 (100.0)
	사회과학대학		7 (77.8)		1 (11.1)		1 (11.1)		9 (100.0)
	음악대학	2 (15.4)	6 (46.2)	3 (23.1)			1 (7.7)	1 (7.7)	13 (100.0)
	미술·디자인대학	3 (50.0)		1 (16.7)			1 (16.7)	1 (16.7)	6 (100.0)
	사범대학		5 (100.0)						5 (100.0)

조사대상자 중 편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고민하는 2순위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4-2>와 같다. 편입을 고민하는 2순위 이유로는 '진로/취업'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단과대별로 보면 사범대학의 경우 2순위에서 '진로/취업'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24-2>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2순위)

N(%)

구분	통학 문제	학교 의사 회적 인지도	전공 과적 성의 불일치	대학 생활 부적응	종교 문제	대인 관계	진로/취업	경제적 문제	기타	합계	
전체	11 (11.3)	20 (20.6)	12 (12.4)	3 (3.1)	2 (2.1)	6 (6.2)	32 (33.0)	10 (10.3)	1 (1.0)	97 (100.0)	
성별	남자	4 (8.7)	7 (15.2)	5 (10.9)	1 (2.2)		4 (8.7)	19 (41.3)	5 (10.9)	1 (2.2)	46 (100.0)
	여자	7 (13.7)	13 (25.5)	7 (13.7)	2 (3.9)	2 (3.9)	2 (3.9)	13 (25.5)	5 (9.8)		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 (14.3)				3 (42.9)	3 (42.9)		7 (100.0)	
	문화콘텐츠대학		4 (23.5)	5 (29.4)	2 (11.8)		2 (11.8)	3 (17.6)	1 (5.9)	17 (100.0)	
	테크노과학대학	4 (23.5)	4 (23.5)	1 (5.9)		1 (5.9)	1 (5.9)	4 (23.5)	2 (11.8)	17 (100.0)	
	공과대학	4 (17.4)	5 (21.7)	1 (4.3)		1 (4.3)	1 (4.3)	6 (26.1)	4 (17.4)	1 (4.3)	23 (100.0)
	사회과학대학	2 (22.2)	1 (11.1)	2 (22.2)				4 (44.4)			9 (100.0)
	음악대학	1 (7.7)	2 (15.4)	1 (7.7)	1 (7.7)		1 (7.7)	7 (53.8)			13 (100.0)
	미술디자인대학		3 (50.0)	1 (16.7)				2 (33.3)			6 (100.0)
	사범대학			1 (20.0)			1 (20.0)	3 (60.0)			5 (100.0)

조사대상자 중 편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고민하는 3순위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4-3>과 같다. 편입을 고민하는 2순위에서와 마찬가지로 3순위 이유로 '진로/취업'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문제'도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통학문제', '사회적 지도',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대인관계'가 그 다음 11.8%로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단과대학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미술디자인대학의 경우 '진로/취업'이 33.3%로 높게 나타났고, 사범대학은 '경제적 문제'가 40%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3-24-3>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3순위)

N(%)

구분	통학문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대학생활부적응	종교문제	대인관계	진로/취업	경제적 문제	기타	합계	
전체	11 (11.3)	7 (7.2)	12 (12.4)	8 (8.2)	4 (4.1)	8 (8.2)	18 (18.6)	18 (18.6)	11 (11.3)	97 (100.0)	
성별	남자	5 (10.9)	1 (2.2)	6 (13.0)	4 (8.7)		2 (4.3)	8 (17.4)	13 (28.3)	7 (15.2)	46 (100.0)
	여자	6 (11.8)	6 (11.8)	6 (11.8)	4 (7.8)	4 (7.8)	6 (11.8)	10 (19.6)	5 (9.8)	4 (7.8)	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14.3)		1 (14.3)			2 (28.6)	1 (14.3)	2 (28.6)		7 (100.0)
	문화콘텐츠대학	2 (11.8)	1 (5.9)	1 (5.9)	3 (17.6)		2 (11.8)	3 (17.6)	3 (17.6)	2 (11.8)	17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11.8)	2 (11.8)	2 (11.8)	1 (5.9)	2 (11.8)	1 (5.9)	2 (11.8)	3 (17.6)	2 (11.8)	17 (100.0)
	공과대학	3 (13.0)	1 (4.3)	4 (17.4)	2 (8.7)	1 (4.3)	1 (4.3)	5 (21.7)	3 (13.0)	3 (13.0)	23 (100.0)
	사회과학대학	1 (11.1)	1 (11.1)	3 (33.3)				1 (11.1)	2 (22.2)	1 (11.1)	9 (100.0)
	음악대학	1 (7.7)			2 (15.4)	1 (7.7)	1 (7.7)	3 (23.1)	2 (15.4)	3 (23.1)	13 (100.0)
	미술·디자인대학		2 (33.3)				1 (16.7)	2 (33.3)	1 (16.7)		6 (100.0)
	사범대학	1 (20.0)		1 (20.0)				1 (20.0)	2 (40.0)		5 (100.0)

조사대상자의 자퇴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25>에서와 같이, ‘아니오’ 85.8%, ‘예’ 14.2%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25> 자퇴에 대한 고민

N(%)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41 (14.2)	247 (85.8)	288 (100.0)
성별	남자	21 (15.3)	116 (84.7)	137 (100.0)
	여자	20 (13.2)	131 (86.8)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6 (19.4)	25 (80.6)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8 (17.8)	37 (8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4 (12.1)	29 (87.9)	33 (100.0)
	공과대학	6 (9.8)	55 (90.2)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8)	16 (84.2)	19 (100.0)
	음악대학	9 (32.1)	19 (67.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4 (10.8)	33 (89.2)	37 (100.0)
	사범대학	1 (2.9)	33 (97.1)	34 (100.0)

응답자들의 자퇴에 대해 고민한 시기를 살펴보면 <표 3-25-1>과 같이, '1학년 1학기'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학년 2학기'가 19.5%, '1학년 2학기'가 17.1%,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 사범대는 1학년 2학기에 자퇴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1학기는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로 전반적인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자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학생상담센터 및 취창업지원단, 대학교육 개발원, 단과대학이 연계하여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3-25-1> 자퇴 고민 시기

N(%)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합계	
전체	9 (22.0)	7 (17.1)	6 (14.6)	8 (19.5)	6 (14.6)	2 (4.9)	2 (4.9)	1 (2.4)	41 (100.0)	
성 별	남자	1 (4.8)	5 (23.8)	4 (19.0)	5 (23.8)	3 (14.3)	1 (4.8)	1 (4.8)	21 (100.0)	
	여자	8 (40.0)	2 (10.0)	2 (10.0)	3 (15.0)	3 (15.0)	1 (5.0)	1 (5.0)	20 (100.0)	
단 과 대 학	신학대학	2 (33.3)	3 (50.0)	1 (16.7)					6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12.5)	1 (12.5)		2 (25.0)	2 (25.0)		1 (12.5)	1 (12.5)	8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공과대학		1 (16.7)		2 (33.3)	2 (33.3)	1 (16.7)		6 (100.0)	
	사회과학대학	2 (66.7)		1 (33.3)					3 (100.0)	
	음악대학	1 (11.1)	1 (11.1)	3 (33.3)	1 (11.1)	1 (11.1)	1 (11.1)	1 (11.1)	9 (100.0)	
	미술·디자인대학	2 (50.0)			2 (50.0)				4 (100.0)	
	사범대학		1 (100.0)						1 (100.0)	

조사대상자 중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퇴를 고민하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5-2>과 같다. 우선,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로는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부적응' 19.5%,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진로/취업의 문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남학생들의 경우 '전공불일치'가 동일한 33.3%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 별로 살펴본 결과 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25-2>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1순위) N(%)

구분	통학문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대학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진로/취업	경제적 문제	기타	합계	
전체	3 (7.3)	5 (12.2)	14 (34.1)	8 (19.5)	1 (2.4)	5 (12.2)	3 (7.3)	2 (4.9)	41 (100.0)	
성별	남자	1 (4.8)	3 (14.3)	7 (33.3)	3 (14.3)	1 (4.8)	2 (9.5)	3 (14.3)	1 (4.8)	21 (100.0)
	여자	2 (10.0)	2 (10.0)	7 (35.0)	5 (25.0)		3 (15.0)		1 (5.0)	20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6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12.5)		3 (37.5)	2 (25.0)		1 (12.5)		1 (12.5)	8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25.0)	3 (75.0)						4 (100.0)
	공과대학				3 (50.0)		2 (33.3)		1 (16.7)	6 (100.0)
	사회과학대학	1 (33.3)	1 (33.3)		1 (33.3)					3 (100.0)
	음악대학	1 (11.1)	2 (22.2)	3 (33.3)	1 (11.1)		1 (11.1)	1 (11.1)		9 (100.0)
	미술·디자인대학			3 (75.0)				1 (25.0)		4 (100.0)
	사범대학			1 (100.0)						1 (100.0)

조사대상자 중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퇴를 고민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5-3>과 같다. 자퇴를 고민하는 2순위로는 '진로/취업'의 문제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의 부적응', '대인관계'가 17.1%,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경제적 문제'가 9.8%, '통학문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7.3%, 종교문제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사범대학의 경우 '대학생활의 부적응'이 100%로 나타났다.

<표 3-25-3>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2순위)

N(%)

구분	통학문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대학생활 부적응	종교문제	대인관계	진로/취업	경제적 문제	합계	
전체	3 (7.3)	3 (7.3)	4 (9.8)	7 (17.1)	1 (2.4)	7 (17.1)	12 (29.3)	4 (9.8)	41 (100.0)	
성별	남자	1 (4.8)		2 (9.5)	4 (19.0)		3 (14.3)	8 (38.1)	3 (14.3)	21 (100.0)
	여자	2 (10.0)	3 (15.0)	2 (10.0)	3 (15.0)	1 (5.0)	4 (20.0)	4 (20.0)	1 (5.0)	20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16.7)	1 (16.7)	1 (16.7)	2 (33.3)	1 (16.7)	6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12.5)		2 (25.0)	1 (12.5)		2 (25.0)		2 (25.0)	8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25.0)	1 (25.0)				2 (50.0)		4 (100.0)
	공과대학	1 (16.7)			1 (16.7)		3 (50.0)		1 (16.7)	6 (100.0)
	사회과학대학		2 (66.7)					1 (33.3)		3 (100.0)
	음악대학			1 (11.1)	1 (11.1)		1 (11.1)	6 (66.7)		9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5.0)			2 (50.0)			1 (25.0)		4 (100.0)
	사범대학				1 (100.0)					1 (100.0)

조사대상자 중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퇴를 고민하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5-4>와 같다.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19.5%, ‘대인관계’ 17.1%, ‘진로/취업’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사범대학은 ‘진로/취업’ 의 문제가 1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5-4>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3순위) N(%)

구분	통학문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대학생활부적응	대인관계	진로/취업	경제적 문제	기타	합계	
전체	3 (7.3)	3 (7.3)	8 (19.5)	2 (4.9)	7 (17.1)	5 (12.2)	11 (26.8)	2 (4.9)	41 (100.0)	
성별	남자	3 (14.3)	1 (4.8)	5 (23.8)	1 (4.8)	2 (9.5)	2 (9.5)	6 (28.6)	1 (4.8)	21 (100.0)
	여자		2 (10.0)	3 (15.0)	1 (5.0)	5 (25.0)	3 (15.0)	5 (25.0)	1 (5.0)	20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16.7)		1 (16.7)			4 (66.7)		6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12.5)	1 (12.5)			4 (50.0)	1 (12.5)	1 (12.5)	8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25.0)				2 (50.0)	1 (25.0)	4 (100.0)	
	공과대학			3 (50.0)		1 (16.7)	1 (16.7)	1 (16.7)	6 (100.0)	
	사회과학대학			2 (66.7)			1 (33.3)		3 (100.0)	
	음악대학	1 (11.1)	1 (11.1)	1 (11.1)	2 (22.2)	1 (11.1)		3 (33.3)	9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사범대학						1 (100.0)		1 (100.0)	

제 5 절 진로 및 취업 관련 사항

조사대상자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중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사항은 결정했는지, 혹은 결정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항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함’이 57.6%로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정 못함’이 42.4%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에 있어서는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결정못함’이 50.8%, 미술디자인대학의 경우에는 54.1%로 나타나 단과대학에 비해 대학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대학 졸업 후 진로

N(%)

구분		결정못함	결정함	합계
전체		122 (42.4)	166 (57.6)	288 (100.0)
성별	남자	56 (40.9)	81 (59.1)	137 (100.0)
	여자	66 (43.7)	85 (56.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3 (41.9)	18 (58.1)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0 (44.4)	25 (55.6)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5 (45.5)	18 (54.5)	33 (100.0)
	공과대학	31 (50.8)	30 (49.2)	61 (100.0)
	사회과학대학	8 (42.1)	11 (57.9)	19 (100.0)
	음악대학	12 (42.9)	16 (5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20 (54.1)	17 (45.9)	37 (100.0)
	사범대학	3 (8.8)	31 (91.2)	34 (100.0)

응답자들의 응답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결정에 확신이 없어서’가 27.9%,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9%,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계획대로 실천이 어려워서’, ‘기타’ 5.7%, ‘직업선택의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1>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

N(%)

구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직업선택 방법을 몰라서	부모님과의견 차이로	직업에 대한정보없어서	진로결정에확신이없어서	성적이 좋지않아서	계획대로실천이어려워서	기타	합계	
전체	47 (38.5)	7 (5.7)	4 (3.3)	1 (0.8)	11 (9.0)	34 (27.9)	4 (3.3)	7 (5.7)	7 (5.7)	122 (100.0)	
성별	남자	19 (33.9)	5 (8.9)	3 (5.4)		4 (7.1)	14 (25.0)	3 (5.4)	4 (7.1)	4 (7.1)	56 (100.0)
	여자	28 (42.4)	2 (3.0)	1 (1.5)	1 (1.5)	7 (10.6)	20 (30.3)	1 (1.5)	3 (4.5)	3 (4.5)	66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5 (38.5)					4 (30.8)	2 (15.4)	2 (15.4)	13 (100.0)	
	문화콘텐츠대학	8 (40.0)		1 (5.0)		2 (10.0)	4 (20.0)	3 (15.0)	1 (5.0)	20 (100.0)	
	테크노과학대학	6 (40.0)	4 (26.7)			1 (6.7)	4 (26.7)			15 (100.0)	
	공과대학	11 (35.5)	3 (9.7)	2 (6.5)		2 (6.5)	10 (32.3)	1 (3.2)	1 (3.2)	31 (100.0)	
	사회과학대학	4 (50.0)				2 (25.0)	2 (25.0)			8 (100.0)	
	음악대학	4 (33.3)			1 (8.3)	1 (8.3)	4 (33.3)		1 (8.3)	12 (100.0)	
	미술·디자인대학	8 (40.0)		1 (5.0)		3 (15.0)	5 (25.0)		1 (5.0)	2 (10.0)	20 (100.0)
	사범대학	1 (33.3)					1 (33.3)		1 (33.3)	3 (100.0)	

조사대상자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중 졸업 후 계획, 희망하는 취업분야, 진로/취업과 관련해 학교에 바라는 점, 취업관련 정보획득처, 취업관련 상담, 취업준비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의 졸업 후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진학’, ‘각종 국가고시 응시’ 19.9%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단과대학에 있어서는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이 72.2%,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31.3%로 나타나 단과대학에 비해 대학 졸업 후의 계획을 ‘대학원 진학’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대학 졸업 후의 계획을 ‘각종 국가고시 응시’ 74.2%가 응답하고 있다. 이에 각 학과별로 각 학부(과)의 특성에 맞는 진로 및 취업, 진학에 대한 설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6-2> 대학 졸업 후 계획

N(%)

구분	취업	대학원 진학	각종국 가고시 응시	유학	개인사 업.자영 업	결혼	군입대	기타	합계	
전체	72 (43.4)	33 (19.9)	33 (19.9)	2 (1.2)	11 (6.6)	1 (0.6)	5 (3.0)	9 (5.4)	166 (100.0)	
성별	남자	20 (24.7)	11 (13.6)		9 (11.1)		4 (4.9)	3 (3.7)	81 (100.0)	
	여자	38 (44.7)	13 (15.3)	22 (25.9)	2 (2.4)	2 (2.4)	1 (1.2)	1 (1.2)	6 (7.1)	85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3 (16.7)	13 (72.2)					1 (5.6)	1 (5.6)	18 (100.0)
	문화콘텐츠대학	14 (56.0)	3 (12.0)	4 (16.0)	1 (4.0)	1 (4.0)		1 (4.0)	1 (4.0)	25 (100.0)
	테크노과학대학	7 (38.9)	4 (22.2)	4 (22.2)				2 (11.1)	1 (5.6)	18 (100.0)
	공과대학	20 (66.7)	6 (20.0)			2 (6.7)		1 (3.3)	1 (3.3)	30 (100.0)
	사회과학대학	7 (63.6)		2 (18.2)					2 (18.2)	11 (100.0)
	음악대학	3 (18.8)	5 (31.3)			4 (25.0)		1 (6.3)	3 (18.8)	16 (100.0)
	미술디자인대학	11 (64.7)	2 (11.8)		1 (5.9)	3 (17.6)				17 (100.0)
	사범대학	7 (22.6)		23 (74.2)		1 (3.2)				31 (100.0)

응답자들의 졸업 후 취업하기를 원하는 희망 취업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전문직(교직 포함)’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기관’ 21.2%, ‘중소기업’이 15.6%, ‘대기업’,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이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22.6%, ‘중소기업’ 20.4%, ‘각종 전문직(교직 포함)’ 19%, ‘대기업’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각종 전문직’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기관’ 19.9%, ‘중소기업’, ‘대학원 유학’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졸업 후의 계획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신학대학교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각종 전문직(교직 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7> 희망 취업분야

N(%)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공무원)	방송, 언론계	각종 전문직(교직 포함)	외국계 기업	대학원, 유학	기타	합계
전체	34 (11.8)	45 (15.6)	61 (21.2)	23 (8.0)	66 (22.9)	3 (1.0)	34 (11.8)	22 (7.6)	288 (100.0)
성별	남자	28 (20.4)	31 (22.6)	8 (5.8)	26 (19.0)	1 (0.7)	17 (12.4)	7 (5.1)	137 (100.0)
	여자	15 (9.9)	17 (11.3)	30 (19.9)	15 (9.9)	40 (26.5)	2 (1.3)	17 (11.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3.2)		12 (38.7)	1 (3.2)	12 (38.7)	4 (12.9)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 (4.4)	18 (40.0)	5 (11.1)	13 (28.9)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5 (15.2)	4 (12.1)	15 (45.5)	3 (9.1)	2 (6.1)		4 (12.1)	33 (100.0)
	공과대학	9 (14.8)	26 (42.6)	9 (14.8)	5 (8.2)	3 (4.9)	1 (1.6)	6 (9.8)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5 (26.3)	7 (36.8)	4 (21.1)				19 (100.0)
	음악대학	1 (3.6)	1 (3.6)	2 (7.1)	5 (17.9)	4 (14.3)		8 (28.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6 (43.2)	7 (18.9)	2 (5.4)	1 (2.7)	5 (13.5)	1 (2.7)	3 (8.1)	37 (100.0)
	사범대학			7 (20.6)		27 (79.4)			34 (100.0)

응답자들의 졸업 후 취업하기 원하는 분야에 희망하는 1순위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분야와 일치해서’ 17%,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단과대학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27-1> 희망 취업분야 이유(1순위)

N(%)

구분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전공분 야와일 치해서	자기개 발을할 수있어 서	보수(임 금)가좋 아서	고용이 안정적 이어서	취업하 기쉬워 서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좋을것 같아서	기타	합계	
전체	132 (45.8)	49 (17.0)	17 (5.9)	24 (8.3)	40 (13.9)	11 (3.8)	9 (3.1)	6 (2.1)	288 (100.0)	
성 별	남자	68 (49.6)	17 (12.4)	10 (7.3)	15 (10.9)	16 (11.7)	7 (5.1)	3 (2.2)	1 (0.7)	137 (100.0)
	여자	64 (42.4)	32 (21.2)	7 (4.6)	9 (6.0)	24 (15.9)	4 (2.6)	6 (4.0)	5 (3.3)	151 (100.0)
단 과 대 학	신학 대학	16 (51.6)	8 (25.8)		2 (6.5)	1 (3.2)		4 (12.9)	31 (100.0)	
	문화 콘텐츠 대학	18 (40.0)	11 (24.4)	3 (6.7)	4 (8.9)	8 (17.8)	1 (2.2)		45 (100.0)	
	테크 노과 대학	17 (51.5)	1 (3.0)		2 (6.1)	8 (24.2)	1 (3.0)	3 (9.1)	1 (3.0)	33 (100.0)
	공과 대학	23 (37.7)	11 (18.0)	4 (6.6)	5 (8.2)	8 (13.1)	7 (11.5)	3 (4.9)		61 (100.0)
	사회 과학 대학	8 (42.1)	4 (21.1)		1 (5.3)	3 (15.8)	2 (10.5)		1 (5.3)	19 (100.0)
	음악 대학	18 (64.3)	5 (17.9)	1 (3.6)	2 (7.1)	2 (7.1)				28 (100.0)
	미술 디자인 대학	14 (37.8)	5 (13.5)	7 (18.9)	7 (18.9)	3 (8.1)		1 (2.7)		37 (100.0)
	사범 대학	18 (52.9)	4 (11.8)	2 (5.9)	1 (2.9)	7 (20.6)		2 (5.9)		34 (100.0)

응답자들의 졸업 후 취업하기 원하는 분야에 희망하는 2순위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분야와 일치해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가 17.7%,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13.9%,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전공의 일치' 다음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대학별로 '전공분야의 일치' 다음으로 '적성에 대한 흥미'와 '자기개발'에 대한 부분이 각각 순위가 다른 대학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7-2> 희망 취업분야 이유(2순위)

N(%)

구분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전공분 야와일 치해서	자기개 발을할 수있어 서	보수(임 금)가 좋아 서	고용이 안정적 이어서	취업하 기쉬워 서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좋을것 같아서	기타	합계	
전체	40 (13.9)	100 (34.7)	51 (17.7)	27 (9.4)	39 (13.5)	8 (2.8)	20 (6.9)	3 (1.0)	288 (100.0)	
성별	남자	16 (11.7)	52 (38.0)	25 (18.2)	11 (8.0)	17 (12.4)	4 (2.9)	10 (7.3)	2 (1.5)	137 (100.0)
	여자	24 (15.9)	48 (31.8)	26 (17.2)	16 (10.6)	22 (14.6)	4 (2.6)	10 (6.6)	1 (0.7)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 대학	6 (19.4)	12 (38.7)	7 (22.6)	2 (6.5)	2 (6.5)	1 (3.2)	1 (3.2)		31 (100.0)
	문화 콘텐츠 대학	6 (13.3)	17 (37.8)	6 (13.3)	4 (8.9)	9 (20.0)	1 (2.2)	2 (4.4)		45 (100.0)
	테크 노과 학대학	2 (6.1)	8 (24.2)	9 (27.3)	6 (18.2)	1 (3.0)	2 (6.1)	4 (12.1)	1 (3.0)	33 (100.0)
	공과 대학	12 (19.7)	16 (26.2)	13 (21.3)	6 (9.8)	7 (11.5)	2 (3.3)	3 (4.9)	2 (3.3)	61 (100.0)
	사회 과학 대학	3 (15.8)	8 (42.1)	1 (5.3)	1 (5.3)	3 (15.8)	1 (5.3)	2 (10.5)		19 (100.0)
	음악 대학	4 (14.3)	14 (50.0)	8 (28.6)		2 (7.1)				28 (100.0)
	미술· 디자인 대학	5 (13.5)	11 (29.7)	4 (10.8)	6 (16.2)	6 (16.2)	1 (2.7)	4 (10.8)		37 (100.0)
	사범 대학	2 (5.9)	14 (41.2)	3 (8.8)	2 (5.9)	9 (26.5)		4 (11.8)		34 (100.0)

응답자들의 졸업 후 취업하기 원하는 분야에 희망하는 3순위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 있어서'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분야와 일치해서' 16.7%,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좋을 거 같아서' 13.9%,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단과대학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테크노과학대학의 경우 '전공분야와 일치해서'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7-3> 희망 취업분야 이유(3순위)

N(%)

구분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전공분 야와일 치해서	자기개 발을할 수있어 서	보수(임 금)가좋 아서	고용이 안정적 이어서	취업하 기쉬워 서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좋을것 같아서	기타	합계	
전체	38 (13.2)	48 (16.7)	81 (28.1)	23 (8.0)	25 (8.7)	12 (4.2)	40 (13.9)	21 (7.3)	288 (100.0)	
성별	남자	18 (13.1)	25 (18.2)	41 (29.9)	11 (8.0)	10 (7.3)	5 (3.6)	19 (13.9)	8 (5.8)	137 (100.0)
	여자	20 (13.2)	23 (15.2)	40 (26.5)	12 (7.9)	15 (9.9)	7 (4.6)	21 (13.9)	13 (8.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4 (12.9)	6 (19.4)	12 (38.7)	1 (3.2)		1 (3.2)	3 (9.7)	4 (12.9)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4 (8.9)	3 (6.7)	13 (28.9)	1 (2.2)	6 (13.3)	3 (6.7)	9 (20.0)	6 (13.3)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1)	10 (30.3)	5 (15.2)	3 (9.1)	5 (15.2)	1 (3.0)	5 (15.2)	2 (6.1)	33 (100.0)
	공과대학	9 (14.8)	10 (16.4)	21 (34.4)	6 (9.8)	4 (6.6)	4 (6.6)	2 (3.3)	5 (8.2)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8)	1 (5.3)	6 (31.6)	3 (15.8)	1 (5.3)		4 (21.1)	1 (5.3)	19 (100.0)
	음악대학	2 (7.1)	4 (14.3)	11 (39.3)	4 (14.3)		1 (3.6)	4 (14.3)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7 (18.9)	9 (24.3)	7 (18.9)	1 (2.7)	3 (8.1)	2 (5.4)	7 (18.9)	1 (2.7)	37 (100.0)
	사범대학	7 (20.6)	5 (14.7)	6 (17.6)	4 (11.8)	6 (17.6)		6 (17.6)		34 (100.0)

조사대상자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가장 바라는 점을 살펴보면 <표 3-2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업 정보 제공'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관련 자기이해(적성, 흥미검사)'가 19.8%,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가 12.8%, '학교 이미지 향상 및 홍보'가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에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3-28> 진로/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

N(%)

구분	진로관련자기이해(적성, 흥미검사)	직업소개및구인정보제공	각계인사및동문과의만남확대	학교이미지향상및홍보	취업설명회및다양한기업정보제공	진로지도및상담활성화	취업관련외국어,자격증특강	이력서작성및취업면접훈련	시설확충(도서관, 영어, 컴퓨터 시설)	합계	
전체	57 (19.8)	66 (22.9)	20 (6.9)	34 (11.8)	19 (6.6)	37 (12.8)	19 (6.6)	22 (7.6)	14 (4.9)	288 (100.0)	
성별	남자	29 (21.2)	32 (23.4)	9 (6.6)	17 (12.4)	10 (7.3)	15 (10.9)	9 (6.6)	7 (5.1)	9 (6.6)	137 (100.0)
	여자	28 (18.5)	34 (22.5)	11 (7.3)	17 (11.3)	9 (6.0)	22 (14.6)	10 (6.6)	15 (9.9)	5 (3.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0 (32.3)	6 (19.4)	4 (12.9)	1 (3.2)		6 (19.4)	1 (3.2)		3 (9.7)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9 (20.0)	14 (31.1)	2 (4.4)	3 (6.7)	2 (4.4)	8 (17.8)	2 (4.4)	5 (11.1)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4 (12.1)	3 (9.1)	2 (6.1)	7 (21.2)	3 (9.1)	5 (15.2)	4 (12.1)	3 (9.1)	2 (6.1)	33 (100.0)
	공과대학	13 (21.3)	17 (27.9)	2 (3.3)	8 (13.1)	7 (11.5)	3 (4.9)	7 (11.5)	3 (4.9)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6 (31.6)	4 (21.1)	1 (5.3)	2 (10.5)		1 (5.3)	2 (10.5)	3 (15.8)		19 (100.0)
	음악대학	4 (14.3)	7 (25.0)	1 (3.6)	7 (25.0)	1 (3.6)	3 (10.7)	1 (3.6)	2 (7.1)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 (8.1)	11 (29.7)		5 (13.5)	5 (13.5)	7 (18.9)	2 (5.4)	4 (10.8)		37 (100.0)
	사범대학	8 (23.5)	4 (11.8)	8 (23.5)	1 (2.9)	1 (2.9)	4 (11.8)		2 (5.9)	6 (17.6)	34 (100.0)

조사대상자들의 취업관련 정보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인터넷 검색'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위의 선배' 16.7%, '학부(과) 교수'가 11.1%, '기타' 5.6%, '방송매체'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관련 정보습득 경로에 있어서 3.8%로 '취업진로센터 이용'이 낮게 나타났는데, 다음 장 <표 3-30>에서 조사된 결과에서 학생들이 취업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곳을 학과교수 다음으로 '취업진로센터'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은 취업진로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로 및 취업상담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관련 정보 습득 경로에서 '취업진로센터 이용'이 낮다는 결과는 학생들의 취업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내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3-29> 취업관련 정보습득의 경로

N(%)

구분	방송매체	신문	인터넷 검색	취업진로센터 이용	학부(과) 교수	주위의 선배	기타	합계	
전체	11 (3.8)	1 (0.3)	169 (58.7)	11 (3.8)	32 (11.1)	48 (16.7)	16 (5.6)	288 (100.0)	
성별	남자	5 (3.6)	1 (0.7)	76 (55.5)	7 (5.1)	17 (12.4)	23 (16.8)	137 (100.0)	
	여자	6 (4.0)		93 (61.6)	4 (2.6)	15 (9.9)	25 (16.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1 (35.5)		3 (9.7)	14 (45.2)	3 (9.7)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2.2)		28 (62.2)	8 (17.8)	3 (6.7)	3 (6.7)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1)		25 (75.8)		2 (6.1)	2 (6.1)	33 (100.0)	
	공과대학	3 (4.9)	1 (1.6)	37 (60.7)	2 (3.3)	8 (13.1)	7 (11.5)	61 (100.0)	
	사회과학대학			12 (63.2)	1 (5.3)	1 (5.3)	2 (10.5)	3 (15.8)	19 (100.0)
	음악대학	3 (10.7)		13 (46.4)		2 (7.1)	9 (32.1)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2 (5.4)		24 (64.9)		5 (13.5)	5 (13.5)	1 (2.7)	37 (100.0)
	사범대학			19 (55.9)		8 (23.5)	6 (17.6)	1 (2.9)	34 (100.0)

조사대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기 원하는 곳을 살펴보면 <표 3-3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학과(부) 교수’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진로센터 이용’ 21.2%, ‘학부(과) 및 동아리 선배’ 12.5%, ‘부모님이나 친지’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8년, 2019년 학생생활보고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취업에 관련된 상담을 받기 원하는 곳을 통해서 볼 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과) 교수와 취업진로센터(취창업지원단)의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상담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진로센터는 현재 전문적인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상담지원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체계의 구축과 취업정보 뿐 아니라 취업 관련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면접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시 습득 할 수 있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본다.

<표 3-30> 취업관련 상담 희망 대상

N(%)

구분	학부(과) 교수	취업진로센터	학부(과) 및 동아리 선배	부모님이나 친지	형제, 자매	친구	학생상담센터	합계	
전체	115 (39.9)	61 (21.2)	36 (12.5)	30 (10.4)	8 (2.8)	25 (8.7)	13 (4.5)	288 (100.0)	
성별	남자	54 (39.4)	22 (16.1)	22 (16.1)	16 (11.7)	4 (2.9)	14 (10.2)	5 (3.6)	137 (100.0)
	여자	61 (40.4)	39 (25.8)	14 (9.3)	14 (9.3)	4 (2.6)	11 (7.3)	8 (5.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2 (38.7)	1 (3.2)	6 (19.4)	8 (25.8)	1 (3.2)	3 (9.7)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6 (35.6)	16 (35.6)	7 (15.6)	2 (4.4)			4 (8.9)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3 (39.4)	11 (33.3)	2 (6.1)	3 (9.1)	1 (3.0)	3 (9.1)		33 (100.0)
	공과대학	25 (41.0)	10 (16.4)	7 (11.5)	5 (8.2)	3 (4.9)	8 (13.1)	3 (4.9)	61 (100.0)
	사회과학대학	4 (21.1)	7 (36.8)	1 (5.3)	4 (21.1)		2 (10.5)	1 (5.3)	19 (100.0)
	음악대학	12 (42.9)	4 (14.3)	5 (17.9)	1 (3.6)	2 (7.1)	2 (7.1)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5 (40.5)	9 (24.3)	3 (8.1)	5 (13.5)		5 (13.5)		37 (100.0)
	사범대학	18 (52.9)	3 (8.8)	5 (14.7)	2 (5.9)	1 (2.9)	2 (5.9)	3 (8.8)	34 (100.0)

조사대상자들이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표 3-31>와 같다.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3학년 1학기'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1학기' 24.3%, '3학년 2학기' 18.8%, '2학년 2학기' 10.4%, '2학년 1학기'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학년이 시작하면서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42.8%로 나타났으며, 2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19.8%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취업 및 진로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결과를 볼 때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취업지원과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맞추어 2학년, 3학년을 위한 차별화되고 집중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학년 때부터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를 위한 마무리(정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각 학년별로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1> 취업준비 시기

N(%)

구분	1학년 1학기 부터	1학년 2학기 부터	2학년 1학기 부터	2학년 2학기 부터	3학년 1학기 부터	3학년 2학기 부터	4학년 1학기 부터	4학년 2학기 부터	합계	
전체	12 (4.2)	6 (2.1)	27 (9.4)	30 (10.4)	69 (24.0)	54 (18.8)	70 (24.3)	20 (6.9)	288 (100.0)	
성 별	남자	8 (5.8)	2 (1.5)	12 (8.8)	10 (7.3)	33 (24.1)	24 (17.5)	35 (25.5)	137 (100.0)	
	여자	4 (2.6)	4 (2.6)	15 (9.9)	20 (13.2)	36 (23.8)	30 (19.9)	35 (23.2)	7 (4.6)	151 (100.0)
단 과 대 학	신학대학	2 (6.5)		3 (9.7)	5 (16.1)	8 (25.8)	4 (12.9)	5 (16.1)	4 (12.9)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 (4.4)		3 (6.7)	4 (8.9)	11 (24.4)	11 (24.4)	10 (22.2)	4 (8.9)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0)		5 (15.2)	3 (9.1)	8 (24.2)	10 (30.3)	6 (18.2)		33 (100.0)
	공과대학	1 (1.6)	2 (3.3)	2 (3.3)	2 (3.3)	13 (21.3)	13 (21.3)	21 (34.4)	7 (11.5)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3 (15.8)	3 (15.8)	4 (21.1)	2 (10.5)	4 (21.1)	1 (5.3)	19 (100.0)
	음악대학	2 (7.1)	1 (3.6)	2 (7.1)	4 (14.3)	7 (25.0)	5 (17.9)	4 (14.3)	3 (10.7)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1 (2.7)	6 (16.2)	6 (16.2)	6 (16.2)	16 (43.2)	1 (2.7)	37 (100.0)
	사범대학	2 (5.9)	2 (5.9)	8 (23.5)	3 (8.8)	12 (35.3)	3 (8.8)	4 (11.8)		34 (100.0)

제 6 절 일상생활 관련 사항

조사대상자의 정서·심리 및 의식으로는 심리건강상태 및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정도,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심리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3개월 동안 경험한 심리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중간값은 3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높다고 평가한 결과는 <표 3-32>과 같다. 최근 3개월 동안 경험한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불안’이 2.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무기력’이 2.26점으로 나타났고, ‘외로움’이 2.2%, ‘분노’가 1.9점,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1.29점, ‘자살시도’는 1.1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 남학생보다 우울과 무기력, 불안, 외로움, 자살생각, 그리고 분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의 경우 타 단과대학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어 이에 대한 상담 및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32> 최근 경험한 심리적 상태

N(%)

구분	외로움 평균	불안 평균	분노 평균	우울, 무기력 평균	자살생각 평균	자살시도 평균	합계	
							응답자수	
전 체	2.2	2.33	1.9	2.26	1.29	1.15	288 (100.0)	
성별	남자	2.18	2.09	1.8	1.95	1.23	1.15	137 (100.0)
	여자	2.23	2.55	1.99	2.54	1.35	1.15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13	2.19	1.74	2.29	1.19	1.03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2	2.38	1.89	2.24	1.36	1.16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42	2.36	2.12	2.58	1.27	1.15	33 (100.0)
	공과대학	2.11	2.28	1.9	1.93	1.2	1.13	61 (100.0)
	사회과학대학	2.32	2.63	2	2.53	1.42	1.16	19 (100.0)
	음악대학	2.32	2.64	2.11	2.61	1.57	1.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2.19	2.22	1.81	2.32	1.3	1.14	37 (100.0)
	사범대학	2.09	2.15	1.74	2.03	1.18	1.15	34 (100.0)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표 3-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보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편임’ 31.6%, ‘매우 만족’ 11.1%,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8.7%, ‘매우 불만족’ 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작년 2019년 조사에서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34.7%로 자신의 성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올해 2020년 외모와 성격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42.7%로 작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외모와 성격에 대한 자신감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33>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만족도

N(%)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합계
전체		8 (2.8)	25 (8.7)	132 (45.8)	91 (31.6)	32 (11.1)	288 (100.0)
성별	남자	6 (4.4)	11 (8.0)	63 (46.0)	38 (27.7)	19 (13.9)	137 (100.0)
	여자	2 (1.3)	14 (9.3)	69 (45.7)	53 (35.1)	13 (8.6)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 (3.2)	4 (12.9)	12 (38.7)	9 (29.0)	5 (16.1)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6.7)	4 (8.9)	17 (37.8)	18 (40.0)	3 (6.7)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1)	3 (9.1)	11 (33.3)	12 (36.4)	5 (15.2)	33 (100.0)
	공과대학	1 (1.6)	5 (8.2)	35 (57.4)	16 (26.2)	4 (6.6)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10 (52.6)	5 (26.3)	2 (10.5)	19 (100.0)
	음악대학		3 (10.7)	10 (35.7)	10 (35.7)	5 (17.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2 (5.4)	24 (64.9)	7 (18.9)	3 (8.1)	37 (100.0)
	사범대학		2 (5.9)	13 (38.2)	14 (41.2)	5 (14.7)	34 (100.0)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3-3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낮은 자존감'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18.2%,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15.2%, '성격에서 오는 어려움'이 9.1%, '자신감 결여'가 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타 대학은 유사성을 볼 수 있으나 문화콘텐츠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는 '낮은 자존감'보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3-1>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N(%)

구분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성격에서 오는 어려움 (우울, 불안, 강박)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	낮은 자존감	합계
전체		6 (18.2)	3 (9.1)	5 (15.2)	1 (3.0)	18 (54.5)	33 (100.0)
성별	남자	3 (17.6)	3 (17.6)	3 (17.6)		8 (47.1)	17 (100.0)
	여자	3 (18.8)		2 (12.5)	1 (6.3)	10 (62.5)	16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20.0)		4 (80.0)	5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42.9)	1 (14.3)	2 (28.6)		1 (14.3)	7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20.0)			4 (80.0)	5 (100.0)
	공과대학			1 (16.7)	1 (16.7)	4 (66.7)	6 (100.0)
	사회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음악대학	1 (33.3)				2 (66.7)	3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33.3)			2 (66.7)	3 (100.0)
	사범대학	1 (50.0)		1 (50.0)			2 (100.0)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표현하는 편임’이 33.3%, ‘잘 표현하지 못함’ 18.1%, ‘매우 잘 표현함’ 11.8%, ‘전혀 표현하지 못함’ 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문화콘텐츠대학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에 대해서 ‘잘하는 편이다’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34>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 정도

N(%)

구분		전혀 표현하지 못함	잘 표현하지 못함	보통	잘 표현하는 편임	매우 잘 표현함	합계
전체		6 (2.1)	52 (18.1)	100 (34.7)	96 (33.3)	34 (11.8)	288 (100.0)
성별	남자	5 (3.6)	22 (16.1)	51 (37.2)	42 (30.7)	17 (12.4)	137 (100.0)
	여자	1 (0.7)	30 (19.9)	49 (32.5)	54 (35.8)	17 (11.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4 (12.9)	3 (9.7)	12 (38.7)	10 (32.3)	2 (6.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2.2)	7 (15.6)	14 (31.1)	19 (42.2)	4 (8.9)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7 (21.2)	10 (30.3)	12 (36.4)	4 (12.1)	33 (100.0)
	공과대학		14 (23.0)	27 (44.3)	16 (26.2)	4 (6.6)	61 (100.0)
	사회과학대학		4 (21.1)	6 (31.6)	5 (26.3)	4 (21.1)	19 (100.0)
	음악대학		6 (21.4)	6 (21.4)	11 (39.3)	5 (17.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8 (21.6)	14 (37.8)	9 (24.3)	5 (13.5)	37 (100.0)
	사범대학		3 (8.8)	11 (32.4)	14 (41.2)	6 (17.6)	34 (100.0)

조사대상자들의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정도를 살펴보면,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임’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7.2%, ‘매우 만족’ 13.5%,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6.3%, ‘매우 불만족’ 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3-35> 대인관계 만족도

N(%)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합계
전체		5 (1.7)	18 (6.3)	107 (37.2)	119 (41.3)	39 (13.5)	288 (100.0)
성별	남자	3 (2.2)	7 (5.1)	53 (38.7)	51 (37.2)	23 (16.8)	137 (100.0)
	여자	2 (1.3)	11 (7.3)	54 (35.8)	68 (45.0)	16 (10.6)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2 (6.5)	10 (32.3)	14 (45.2)	5 (16.1)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 (4.4)	5 (11.1)	8 (17.8)	26 (57.8)	4 (8.9)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0)		17 (51.5)	12 (36.4)	3 (9.1)	33 (100.0)
	공과대학	1 (1.6)	3 (4.9)	29 (47.5)	17 (27.9)	11 (18.0)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4 (21.1)	11 (57.9)	2 (10.5)	19 (100.0)
	음악대학	1 (3.6)	3 (10.7)	11 (39.3)	9 (32.1)	4 (14.3)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2 (5.4)	19 (51.4)	13 (35.1)	3 (8.1)	37 (100.0)
	사범대학		1 (2.9)	9 (26.5)	17 (50.0)	7 (20.6)	34 (100.0)

조사대상자들의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정도를 살펴보면, <표 3-3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신감 결여’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외감과 고립감’이 26.1%, ‘표현력의 부족’ 21.7%, ‘성격적 문제’ 1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표현력의 부족’이 14.6% 높았고, 여학생들의 경우 ‘소외감(고립감)’이 남학생들에 비해 10.8%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35-1> 대인관계 불만족 이유

N(%)

구분		자신감결여	소외감(고립감)	표현력의부 족	성격적문제	합계
전체		8 (34.8)	6 (26.1)	5 (21.7)	4 (17.4)	23 (100.0)
성별	남자	3 (30.0)	2 (20.0)	3 (30.0)	2 (20.0)	10 (100.0)
	여자	5 (38.5)	4 (30.8)	2 (15.4)	2 (15.4)	13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50.0)		1 (50.0)		2 (100.0)
	문화콘텐츠대 학	3 (42.9)	1 (14.3)		3 (42.9)	7 (100.0)
	테크노과학대 학			1 (100.0)		1 (100.0)
	공과대학	2 (50.0)	1 (25.0)	1 (25.0)		4 (100.0)
	사회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음악대학	1 (25.0)	2 (50.0)	1 (25.0)		4 (100.0)
	미술·디자인대 학			1 (50.0)	1 (50.0)	2 (100.0)
	사범대학		1 (100.0)			1 (100.0)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고민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표 3-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고민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것은 ‘취업 및 진로문제’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문제’ 15.3%, ‘경제문제’ 12.5%, ‘학교적응’ 4.5%, ‘대인관계문제’ 4.2%, ‘성격문제’ 3.1%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36> 현재 고민하는 문제

N(%)

구분	학업 문제	취업 및진 로문 제	대인 관계	학교 적응	경제 적인 문제	성격 문제	성.이 성문 제	정서 적문 제	건강 문제	종교 문제	가정 문제	기타	합계
전체	44 (15.3)	142 (49.3)	12 (4.2)	13 (4.5)	36 (12.5)	9 (3.1)	3 (1.0)	7 (2.4)	8 (2.8)	1 (0.3)	1 (0.3)	12 (4.2)	288 (100.0)
성별	남자	20 (14.6)	63 (46.0)	6 (4.4)	5 (3.6)	18 (13.1)	7 (5.1)	2 (1.5)	5 (3.6)	4 (2.9)	1 (0.7)	6 (4.4)	137 (100.0)
	여자	24 (15.9)	79 (52.3)	6 (4.0)	8 (5.3)	18 (11.9)	2 (1.3)	1 (0.7)	2 (1.3)	4 (2.6)	1 (0.7)	6 (4.0)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 대학	1 (3.2)	10 (32.3)	3 (9.7)		10 (32.3)		1 (3.2)	1 (3.2)	1 (3.2)	1 (3.2)	3 (9.7)	31 (100.0)
	문화 콘텐츠 대학	12 (26.7)	19 (42.2)	2 (4.4)		4 (8.9)	1 (2.2)	1 (2.2)	3 (6.7)	2 (4.4)	1 (2.2)		45 (100.0)
	테크 노과 학대학	6 (18.2)	17 (51.5)	2 (6.1)	1 (3.0)	4 (12.1)	1 (3.0)					2 (6.1)	33 (100.0)
	공과 대학	12 (19.7)	32 (52.5)	1 (1.6)	5 (8.2)	2 (3.3)	3 (4.9)	1 (1.6)	1 (1.6)	2 (3.3)		2 (3.3)	61 (100.0)
	사회 과학 대학	3 (15.8)	13 (68.4)			1 (5.3)				1 (5.3)		1 (5.3)	19 (100.0)
	음악 대학		17 (60.7)	2 (7.1)		5 (17.9)	1 (3.6)		1 (3.6)	1 (3.6)		1 (3.6)	28 (100.0)
	미술· 디자인 대학	3 (8.1)	21 (56.8)	1 (2.7)	1 (2.7)	6 (16.2)	3 (8.1)			1 (2.7)		1 (2.7)	37 (100.0)
	사범 대학	7 (20.6)	13 (38.2)	1 (2.9)	6 (17.6)	4 (11.8)			1 (2.9)			2 (5.9)	34 (100.0)

고민이 있을 때 주된 의논상대를 살펴보면, <표 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나 선배’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22.2%, ‘스스로 해결’ 17.0%, ‘없음’이 8.7%, ‘형제자매 또는 친척’이 5.2%, ‘이성친구’가 4.9%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고민이 있을 때 주된 의논상대가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보다는 ‘의논상대 없다’(8.7%)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인적자원이 없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의논상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민 의논 상대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학과에서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서 학교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1차 상담이 진행된 후 학내에 있는 학생상담센터에서 2차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도울 수 있다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3-37> 고민 의논상대

N(%)

구분	부모님	형제자매 또는 친척	친구나 선배	지도교수	성직자	교내 또는 교외 상담소	인터넷상담	스스로 해결	이성친구	전문상담사	의논상대 없음	합계
전체	64 (22.2)	15 (5.2)	110 (38.2)	3 (1.0)	3 (1.0)	1 (0.3)	2 (0.7)	49 (17.0)	14 (4.9)	2 (0.7)	25 (8.7)	288 (100.0)
성별	남자	30 (21.9)	7 (5.1)	50 (36.5)	3 (2.2)	1 (0.7)	1 (0.7)	24 (17.5)	5 (3.6)	1 (0.7)	15 (10.9)	137 (100.0)
	여자	34 (22.5)	8 (5.3)	60 (39.7)	2 (1.3)	1 (0.7)	1 (0.7)	25 (16.6)	9 (6.0)	1 (0.7)	10 (6.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 (6.5)		12 (38.7)	1 (3.2)	3 (9.7)		8 (25.8)	2 (6.5)		3 (9.7)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1 (24.4)	3 (6.7)	18 (40.0)	1 (2.2)			6 (13.3)	3 (6.7)	2 (4.4)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8 (24.2)	2 (6.1)	13 (39.4)			1 (3.0)	5 (15.2)	3 (9.1)		1 (3.0)	33 (100.0)
	공과대학	16 (26.2)	4 (6.6)	19 (31.1)				10 (16.4)	2 (3.3)		8 (13.1)	61 (100.0)
	사회과학대학	4 (21.1)	1 (5.3)	7 (36.8)				3 (15.8)			4 (21.1)	19 (100.0)
	음악대학	3 (10.7)	2 (7.1)	13 (46.4)				6 (21.4)	3 (10.7)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1 (29.7)	1 (2.7)	13 (35.1)				7 (18.9)			5 (13.5)	37 (100.0)
	사범대학	9 (26.5)	2 (5.9)	15 (44.1)	1 (2.9)			4 (11.8)	1 (2.9)		2 (5.9)	34 (100.0)

제 7 절 성관련 문제

응답자의 성 관련 사항으로는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허용에 대한 생각과 성관계에 대한 생각,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 성관계 경험, 동거에 대한 생각, 성적 괴롭힘(경험, 종류, 가해 대상 등)과 관련된 문항 등을 알아 보았다.

우선, 응답자들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의 허용범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표 3-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관계’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포옹’이 27.1%, ‘뽀뽀/키스’가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성관계까지 허용’이 52.6%으로 가장 높지만, 여학생은 ‘포옹’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테크노과학대(51.5%)와 공과대학(47.5%)의 경우에는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허용에 대하여 ‘성관계’까지 허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신학대학에서는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허용범위에 대하여 ‘뽀뽀, 키스’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 단과대학에 비해 ‘성관계까지 허용’이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단과대학별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의 허용범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38>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의 허용범위

N(%)

구분	전혀 허용하지 않음	어깨동무·손잡기	뽀뽀, 키스	포옹	신체애무	성(교)관계까지 허용	합계	
전체	9 (3.1)	29 (10.1)	51 (17.7)	78 (27.1)	8 (2.8)	113 (39.2)	288 (100.0)	
성별	남자	5 (3.6)	11 (8.0)	20 (14.6)	26 (19.0)	3 (2.2)	72 (52.6)	137 (100.0)
	여자	4 (2.6)	18 (11.9)	31 (20.5)	52 (34.4)	5 (3.3)	41 (27.2)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 (6.5)	3 (9.7)	12 (38.7)	10 (32.3)		4 (12.9)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6.7)	4 (8.9)	9 (20.0)	11 (24.4)	1 (2.2)	17 (37.8)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0)	2 (6.1)	4 (12.1)	6 (18.2)	3 (9.1)	17 (51.5)	33 (100.0)
	공과대학	2 (3.3)	8 (13.1)	6 (9.8)	15 (24.6)	1 (1.6)	29 (47.5)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8)	3 (15.8)	5 (26.3)		8 (42.1)	19 (100.0)
	음악대학	1 (3.6)		8 (28.6)	7 (25.0)		12 (42.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5 (13.5)	8 (21.6)	13 (35.1)		11 (29.7)	37 (100.0)
	사범대학		4 (11.8)	1 (2.9)	11 (32.4)	3 (8.8)	15 (44.1)	34 (100.0)

조사대상자들의 성(교)관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표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자연스럽다’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 없다’가 28.5%, ‘어색하고 부끄럽다’가 16.3%, ‘기타’가 3.5%, ‘불결하고 혐오스럽다’가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성(교)에 대한 생각

N(%)

구분		아름답고 자연스럽다	어색하고 부끄럽다	불결하고 혐오스럽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기타	합계
전체		143 (49.7)	47 (16.3)	6 (2.1)	82 (28.5)	10 (3.5)	288 (100.0)
성별	남자	88 (64.2)	17 (12.4)	3 (2.2)	26 (19.0)	3 (2.2)	137 (100.0)
	여자	55 (36.4)	30 (19.9)	3 (2.0)	56 (37.1)	7 (4.6)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6 (51.6)	7 (22.6)	1 (3.2)	4 (12.9)	3 (9.7)	31 (100.0)
	문화콘텐츠 대학	18 (40.0)	12 (26.7)	3 (6.7)	11 (24.4)	1 (2.2)	45 (100.0)
	테크노과학 대학	14 (42.4)	11 (33.3)		8 (24.2)		33 (100.0)
	공과대학	30 (49.2)	5 (8.2)		23 (37.7)	3 (4.9)	61 (100.0)
	사회과학대 학	5 (26.3)	3 (15.8)		10 (52.6)	1 (5.3)	19 (100.0)
	음악대학	22 (78.6)	1 (3.6)		3 (10.7)	2 (7.1)	28 (100.0)
	미술·디자인 대학	17 (45.9)	3 (8.1)		17 (45.9)		37 (100.0)
	사범대학	21 (61.8)	5 (14.7)	2 (5.9)	6 (17.6)		34 (100.0)

조사대상자들의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표 3-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가 24.7%,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20.8%, ‘절대 안된다’ 18.4%, ‘결혼이나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혼전 성관계는 절대 안됨’이 19.7%, 여학생은 17.2%로 나타났으며, ‘혼전 성관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가 남학생은 29.9%, 여학생은 19.9%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혼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은 성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에 따라 살펴보면 신학대학의 경우 ‘절대 안된다’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타 단과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

N(%)

구분		절대 안 된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사랑하면 괜찮다	결혼이나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합계
전체		53 (18.4)	60 (20.8)	99 (34.4)	5 (1.7)	71 (24.7)	288 (100.0)
성별	남자	27 (19.7)	31 (22.6)	36 (26.3)	2 (1.5)	41 (29.9)	137 (100.0)
	여자	26 (17.2)	29 (19.2)	63 (41.7)	3 (2.0)	30 (19.9)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6 (51.6)	11 (35.5)	3 (9.7)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8 (17.8)	12 (26.7)	17 (37.8)		8 (17.8)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8 (24.2)	3 (9.1)	15 (45.5)		7 (21.2)	33 (100.0)
	공과대학	7 (11.5)	15 (24.6)	18 (29.5)	1 (1.6)	20 (32.8)	61 (100.0)
	사회과학대학	5 (26.3)	6 (31.6)	2 (10.5)		6 (31.6)	19 (100.0)
	음악대학	4 (14.3)	4 (14.3)	11 (39.3)		9 (32.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3 (8.1)	18 (48.6)	2 (5.4)	13 (35.1)	37 (100.0)
	사범대학	4 (11.8)	6 (17.6)	15 (44.1)	2 (5.9)	7 (20.6)	34 (100.0)

조사대상자들의 대학입학 후 성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표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이 16%, '한 두번'이 9%, '자주'가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없음을 볼 수 있으며, 단과대학에 있어서도 앞에서 나타난 혼전성관계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각 단과대학의 결과를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41> 성관계 경험

N(%)

구분		없다	한두번	가끔	자주	합계
전체		204 (70.8)	26 (9.0)	46 (16.0)	12 (4.2)	288 (100.0)
성별	남자	92 (67.2)	13 (9.5)	27 (19.7)	5 (3.6)	137 (100.0)
	여자	112 (74.2)	13 (8.6)	19 (12.6)	7 (4.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9 (93.5)		2 (6.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31 (68.9)	5 (11.1)	6 (13.3)	3 (6.7)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20 (60.6)	2 (6.1)	8 (24.2)	3 (9.1)	33 (100.0)
	공과대학	43 (70.5)	8 (13.1)	9 (14.8)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12 (63.2)	1 (5.3)	5 (26.3)	1 (5.3)	19 (100.0)
	음악대학	16 (57.1)	4 (14.3)	6 (21.4)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0 (81.1)	3 (8.1)	3 (8.1)	1 (2.7)	37 (100.0)
	사범대학	23 (67.6)	3 (8.8)	7 (20.6)	1 (2.9)	34 (100.0)

성관계 시 피임(콘돔, 페미돔, 피임약 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번 한다’가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한다’ 15.5%, ‘거의 안한다’ 3.6%, ‘전혀 안한다’ 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시 성관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성관계 시의 피임 여부에 대한 결과는 현재 대학 내에서 실시하는 성관련 교육내용에 의해 작년보다 많은 부분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피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매번 함(64.8%) 보다 올해에 많이 증가(78.6%)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교육과 함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매매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성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예방교육과 함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3-41-1> 성관계 시 피임여부

N(%)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매번 한다	합계
전체		2 (2.4)	3 (3.6)	13 (15.5)	66 (78.6)	84 (100.0)
성별	남자	2 (4.4)	2 (4.4)	9 (20.0)	32 (71.1)	45 (100.0)
	여자		1 (2.6)	4 (10.3)	34 (87.2)	39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 (100.0)	2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21.4)	11 (78.6)	14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7.7)	1 (7.7)	1 (7.7)	10 (76.9)	13 (100.0)
	공과대학	1 (5.6)	1 (5.6)	5 (27.8)	11 (61.1)	18 (100.0)
	사회과학대학				7 (100.0)	7 (100.0)
	음악대학			2 (16.7)	10 (83.3)	12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14.3)	1 (14.3)	5 (71.4)	7 (100.0)
	사범대학			1 (9.1)	10 (90.9)	11 (100.0)

조사대상자의 동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표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가 31.6%,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26%,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9%, '동거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다'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이해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가 39.1%로 남학생의 23.4%보다 15.7%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여학생보다 10.9%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학대학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가 22.6%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2> 동거에 대한 생각

N(%)

구분	동거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합계	
전체	13 (4.5)	95 (33.0)	75 (26.0)	91 (31.6)	14 (4.9)	288 (100.0)	
성별	남자	10 (7.3)	53 (38.7)	36 (26.3)	32 (23.4)	6 (4.4)	137 (100.0)
	여자	3 (2.0)	42 (27.8)	39 (25.8)	59 (39.1)	8 (5.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3 (9.7)	5 (16.1)	16 (51.6)	7 (22.6)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7 (37.8)	15 (33.3)	8 (17.8)	5 (11.1)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3 (9.1)	12 (36.4)	10 (30.3)	8 (24.2)		33 (100.0)
	공과대학	6 (9.8)	17 (27.9)	19 (31.1)	19 (31.1)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4 (21.1)	2 (10.5)	11 (57.9)	1 (5.3)	19 (100.0)
	음악대학	1 (3.6)	11 (39.3)	6 (21.4)	9 (32.1)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19 (51.4)	7 (18.9)	10 (27.0)		37 (100.0)
	사범대학	1 (2.9)	12 (35.3)	11 (32.4)	10 (29.4)		34 (100.0)

대학생활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 등)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43>와 같다. 성적 괴롭힘 경험은 ‘없다’가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있다’가 5.2%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학생생활보고서에 보고된 대학생활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7.1%로 나타났으며, 2013년 조사에서는 2.2%, 2014년과 2015년 조사에서는 2.3%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1.5%, 2017년에는 1.8%, 2018년에는 2.0%, 2019년 1.8%로 2012년도에 비해 점차적으로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올해에는 5.2%로 늘어나 앞으로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방지 교육실시 및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지침서 등을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요구 되어진다.

<표 3-43>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험 N(%)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		15 (5.2)	273 (94.8)	288 (100.0)
성별	남자	1 (0.7)	136 (99.3)	137 (100.0)
	여자	14 (9.3)	137 (90.7)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2 (6.5)	29 (93.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4 (8.9)	41 (91.1)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3 (9.1)	30 (90.9)	33 (100.0)
	공과대학	2 (3.3)	59 (96.7)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17 (89.5)	19 (100.0)
	음악대학	2 (7.1)	26 (92.9)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7 (100.0)	37 (100.0)
	사범대학		34 (100.0)	34 (100.0)

조사대상자 중 대학생활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한 성적 괴롭힘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43-1>과 같다.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 언행', '집요한 연락',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성추행'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인 소문',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가 13.3%, '술 시중', '대가를 제공한 관계요구'가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요한 연락'이 여학생들보다 상당부분 높게 나타났다.

<표 3-43-1>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종류

N(%)

구분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 언행	나의 성적 인관계나 성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트림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술자리에 서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자리 강요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집요하게 연락(전화, 문자, 이메일 등)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성추행	합계
전체	3 (20.0)	2 (13.3)	2 (13.3)	1 (6.7)	3 (20.0)	1 (6.7)	3 (20.0)	15 (100.0)
성별	남자				1 (100.0)			1 (100.0)
	여자	3 (21.4)	2 (14.3)	2 (14.3)	1 (7.1)	2 (14.3)	1 (7.1)	3 (21.4)
단과대학	신학대학				1 (50.0)		1 (50.0)	2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25.0)	2 (50.0)			1 (25.0)	4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3.3)				1 (33.3)	1 (33.3)	3 (100.0)
	공과대학	1 (50.0)				1 (50.0)		2 (100.0)
	사회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음악대학	1 (50.0)	1 (50.0)					2 (100.0)
	미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대학생활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을 경험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3-2>과 같다. ‘술자리’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33.3%, ‘강의실’ 13.3%, ‘도서관’, ‘동아리방’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여학생들은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장소 중 특히 ‘술자리’가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3-2>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경험 장소 N(%)

구분		강의실	도서관	동아리방	술자리	기타	합계
전체		2 (13.3)	1 (6.7)	1 (6.7)	6 (40.0)	5 (33.3)	15 (100.0)
성별	남자					1 (100.0)	1 (100.0)
	여자	2 (14.3)	1 (7.1)	1 (7.1)	6 (42.9)	4 (28.6)	14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2 (100.0)	2 (100.0)
	문화콘텐츠대학	2 (50.0)			1 (25.0)	1 (25.0)	4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6.7)	1 (33.3)	3 (100.0)
	공과대학			1 (50.0)	1 (50.0)		2 (100.0)
	사회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음악대학				1 (50.0)	1 (50.0)	2 (100.0)
	미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자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 및 선후배’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0%, ‘교수’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2019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선후배’는 0.7%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소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뿐이지 학생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선후배나 이성친구를 통해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9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와 비슷한 결과인데 성적 괴롭힘의 행위자가 동기 및 선후배이면서 또한 그 장소가 ‘강의실’이나 ‘술자리’처럼 학생들이 활동하는 장소라는 사실은 충격이지 않을 수 없다. 실제적으로 행위자의 행동이 성적 괴롭힘의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행동인지 아니면 인지하고 이루어진 행동인지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성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므로 학생들의 성문화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표 3-43-3>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

N(%)

구분		동기및선후배	교수	기타	합계
전체		11 (73.3)	1 (6.7)	3 (20.0)	15 (100.0)
성별	남자			1 (100.0)	1 (100.0)
	여자	11 (78.6)	1 (7.1)	2 (14.3)	14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50.0)		1 (50.0)	2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75.0)	1 (25.0)		4 (100.0)
	테크노과학대학	2 (66.7)		1 (33.3)	3 (100.0)
	공과대학	2 (100.0)			2 (100.0)
	사회과학대학	1 (50.0)		1 (50.0)	2 (100.0)
	음악대학	2 (100.0)			2 (100.0)
	미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대처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3-4>과 같다. ‘불쾌했지만 일단 참음’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선배 등)에게 상담’,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의사를 밝힘’ 20%, ‘일단 참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얘기’, 13.3%, ‘교외관련 기관에 신고’, ‘기타’가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선배 등)에게 상담’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쾌하지만 일단 참음’이 35.7%,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의사를 밝힘’이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단과대학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사회과학대학에서는 ‘불쾌하지만 일단 참음’이 1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3-4>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

N(%)

구분		불쾌했지만 참음	주변사람 들(가족, 친구, 선 배등)에 게상담	일단참고 , 나중에 당사자에 게얘기	그자리에 서잘못을 지적하고 의사를밝 힘	교외관련 기관(경 찰, 성폭 력상담소)에신고	기타	합계
전체		5 (33.3)	3 (20.0)	2 (13.3)	3 (20.0)	1 (6.7)	1 (6.7)	15 (100.0)
성별	남자		1 (100.0)					1 (100.0)
	여자	5 (35.7)	2 (14.3)	2 (14.3)	3 (21.4)	1 (7.1)	1 (7.1)	14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50.0)		1 (50.0)	2 (100.0)
	문화콘텐츠대학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3.3)	1 (33.3)		1 (33.3)			3 (100.0)
	공과대학	1 (50.0)			1 (50.0)			2 (100.0)
	사회과학대학	2 (100.0)						2 (100.0)
	음악대학		1 (50.0)	1 (50.0)				2 (100.0)
	미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대학 내 성적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44>과 같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가 39.6%, '다소 심각하다'가 11.8%, '매우 심각하다'가 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44> 교내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의 심각도

N(%)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합계
전체		119 (41.3)	114 (39.6)	34 (11.8)	21 (7.3)	288 (100.0)
성별	남자	76 (55.5)	46 (33.6)	9 (6.6)	6 (4.4)	137 (100.0)
	여자	43 (28.5)	68 (45.0)	25 (16.6)	15 (9.9)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8 (25.8)	15 (48.4)	6 (19.4)	2 (6.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15 (33.3)	17 (37.8)	6 (13.3)	7 (15.6)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6 (48.5)	12 (36.4)	2 (6.1)	3 (9.1)	33 (100.0)
	공과대학	36 (59.0)	21 (34.4)	3 (4.9)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8)	13 (68.4)	1 (5.3)	2 (10.5)	19 (100.0)
	음악대학	10 (35.7)	14 (50.0)	3 (10.7)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7 (45.9)	13 (35.1)	4 (10.8)	3 (8.1)	37 (100.0)
	사범대학	14 (41.2)	9 (26.5)	9 (26.5)	2 (5.9)	34 (100.0)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3-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모른다’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25%, ‘관련기관과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다’가 17.7%,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가 17%, 전혀 모른다’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 비해 대처방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 괴롭힘에 대해 어느정도의 기초지식과 대처방안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표 3-45>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N(%)

구분		전혀모른다	구체적인대 처방법은모 른다	관련기관을 알고있어필 요시도움받 을수있다	관련기관및 대처방법을 알고있다	잘알고있어 다른사람에 게도움을줄 수있다	합계
전체		13 (4.5)	103 (35.8)	72 (25.0)	51 (17.7)	49 (17.0)	288 (100.0)
성별	남자	5 (3.6)	47 (34.3)	29 (21.2)	27 (19.7)	29 (21.2)	137 (100.0)
	여자	8 (5.3)	56 (37.1)	43 (28.5)	24 (15.9)	20 (13.2)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2 (6.5)	13 (41.9)	10 (32.3)	3 (9.7)	3 (9.7)	31 (100.0)
	문화콘텐츠대 학	1 (2.2)	13 (28.9)	11 (24.4)	12 (26.7)	8 (17.8)	45 (100.0)
	테크노과학대 학	3 (9.1)	18 (54.5)	5 (15.2)	4 (12.1)	3 (9.1)	33 (100.0)
	공과대학	4 (6.6)	22 (36.1)	15 (24.6)	10 (16.4)	10 (16.4)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7 (36.8)	5 (26.3)		5 (26.3)	19 (100.0)
	음악대학		9 (32.1)	5 (17.9)	5 (17.9)	9 (32.1)	28 (100.0)
	미술·디자인대 학		13 (35.1)	8 (21.6)	10 (27.0)	6 (16.2)	37 (100.0)
	사범대학	1 (2.9)	8 (23.5)	13 (38.2)	7 (20.6)	5 (14.7)	34 (100.0)

희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교제 시 성적 문제 대처방법’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특강’이 22.9%, ‘피임지식’ 21.5%, ‘성병예방’ 14.2%, ‘성역할’, ‘기타’ 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46> 희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의 내용

N(%)

구분	이성교제 시성적문 제대처방 법	성희롱·성 폭력예방 특강	성병예방 및대처방 안	피임법	성역할	기타	합계	
전체	99 (34.4)	66 (22.9)	41 (14.2)	62 (21.5)	10 (3.5)	10 (3.5)	288 (100.0)	
성별	남자	45 (32.8)	37 (27.0)	18 (13.1)	26 (19.0)	7 (5.1)	4 (2.9)	137 (100.0)
	여자	54 (35.8)	29 (19.2)	23 (15.2)	36 (23.8)	3 (2.0)	6 (4.0)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4 (45.2)	8 (25.8)	2 (6.5)	4 (12.9)		3 (9.7)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1 (46.7)	7 (15.6)	4 (8.9)	9 (20.0)	2 (4.4)	2 (4.4)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9 (27.3)	11 (33.3)	7 (21.2)	2 (6.1)	2 (6.1)	2 (6.1)	33 (100.0)
	공과대학	21 (34.4)	17 (27.9)	8 (13.1)	13 (21.3)	1 (1.6)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8)	5 (26.3)	4 (21.1)	6 (31.6)	1 (5.3)		19 (100.0)
	음악대학	9 (32.1)	6 (21.4)	4 (14.3)	7 (25.0)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2 (32.4)	7 (18.9)	4 (10.8)	12 (32.4)	2 (5.4)		37 (100.0)
	사범대학	10 (29.4)	5 (14.7)	8 (23.5)	9 (26.5)	2 (5.9)		34 (100.0)

제 8 절 학생상담센터 관련 문제

대학생활의 건강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학생상담센터 이용도, 상담받기 원하는 상담 내용, 참여하기 원하는 상담프로그램, 개설되기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7>와 같다. 학생상담센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른다’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그렇다’ 29.5%, ‘전혀 모른다’ 22.2%, ‘잘 알고 있다’ 12.2%, ‘매우 잘 알고 있다’ 4.5%의 순으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잘 모른다’ 31.6%, ‘전혀 모른다’가 22.2%로 나타나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7>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N(%)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그저 그렇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안다	합계
전체		64 (22.2)	91 (31.6)	85 (29.5)	35 (12.2)	13 (4.5)	288 (100.0)
성별	남자	28 (20.4)	39 (28.5)	50 (36.5)	15 (10.9)	5 (3.6)	137 (100.0)
	여자	36 (23.8)	52 (34.4)	35 (23.2)	20 (13.2)	8 (5.3)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4 (12.9)	11 (35.5)	7 (22.6)	8 (25.8)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6 (13.3)	8 (17.8)	14 (31.1)	12 (26.7)	5 (11.1)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3 (39.4)	11 (33.3)	6 (18.2)	3 (9.1)		33 (100.0)
	공과대학	13 (21.3)	21 (34.4)	22 (36.1)	4 (6.6)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11 (57.9)	5 (26.3)	1 (5.3)		19 (100.0)
	음악대학	8 (28.6)	8 (28.6)	9 (32.1)	1 (3.6)	2 (7.1)	28 (100.0)
	미술·디자인 대학	11 (29.7)	8 (21.6)	12 (32.4)	4 (10.8)	2 (5.4)	37 (100.0)
	사범대학	7 (20.6)	13 (38.2)	10 (29.4)	2 (5.9)	2 (5.9)	34 (100.0)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인지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7-1>와 같다.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어서’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상담센터의 홍보부족’이 30.3%,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25.8%, ‘장소를 몰라서’ 7.7%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약 46.2% 이나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47-1>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N(%)

구분		홍보 부족	관심이 없어서	장소를 잘 몰라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합계
전체		47 (30.3)	56 (36.1)	12 (7.7)	40 (25.8)	155 (100.0)
성별	남자	22 (32.8)	32 (47.8)	2 (3.0)	11 (16.4)	67 (100.0)
	여자	25 (28.4)	24 (27.3)	10 (11.4)	29 (33.0)	88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4 (26.7)	5 (33.3)	1 (6.7)	5 (33.3)	15 (100.0)
	문화콘텐츠대학	3 (21.4)	6 (42.9)	1 (7.1)	4 (28.6)	14 (100.0)
	테크노과학대학	7 (29.2)	9 (37.5)	3 (12.5)	5 (20.8)	24 (100.0)
	공과대학	7 (20.6)	18 (52.9)	2 (5.9)	7 (20.6)	34 (100.0)
	사회과학대학	5 (38.5)	6 (46.2)		2 (15.4)	13 (100.0)
	음악대학	8 (50.0)	4 (25.0)	2 (12.5)	2 (12.5)	16 (100.0)
	미술디자인대학	6 (31.6)	7 (36.8)	1 (5.3)	5 (26.3)	19 (100.0)
	사범대학	7 (35.0)	1 (5.0)	2 (10.0)	10 (50.0)	20 (100.0)

상담 및 심리검사를 위해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8>와 같다. 응답자들은 상담 및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 '이용한 적 없다'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한 응답자들 중에는 '3회 이하'가 9.7%, '3~5회', '5회 이상'이 1.4%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2019년(95.3%)에 비해 7.8%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학생상담센터에서 매년 다양한 심리검사를 각 학과별로 실시하고 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학생들이 어느정도 상담센터에 대한 이용욕구와 실제적인 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전히 학과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상담을 주저하는 이유는 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관련이 있는데 상담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 등이 상담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각 학과의 지도교수들의 연계를 통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교수가 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부족과 학생상담센터가 하는 업무나 실시하고 있는 심리검사 및 상담, 그리고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특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표 3-48> 학생상담센터 이용도

N(%)

구분		이용한 적 없음	1~3회	3회~5회	5회이상	합계
전체		252 (87.5)	28 (9.7)	4 (1.4)	4 (1.4)	288 (100.0)
성별	남자	125 (91.2)	10 (7.3)	1 (0.7)	1 (0.7)	137 (100.0)
	여자	127 (84.1)	18 (11.9)	3 (2.0)	3 (2.0)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29 (93.5)	1 (3.2)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26 (57.8)	17 (37.8)	1 (2.2)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30 (90.9)	3 (9.1)			33 (100.0)
	공과대학	57 (93.4)	3 (4.9)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17 (89.5)	1 (5.3)	1 (5.3)		19 (100.0)
	음악대학	26 (92.9)	1 (3.6)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36 (97.3)	1 (2.7)			37 (100.0)
	사범대학	31 (91.2)	1 (2.9)		2 (5.9)	34 (100.0)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학생상담센터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표 3-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하면 가겠다’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서 해결해보다 안 되면 가겠다’ 21.9%, ‘마음은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 12.2%,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가지 않겠다’ 6.6%, ‘모르겠다’ 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49>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향

N(%)

구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필요하면 가겠다	혼자서 해결해보다 안 되면 가겠다	마음은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	가지 않겠다	모르겠다	합계
전체		19 (6.6)	137 (47.6)	63 (21.9)	35 (12.2)	19 (6.6)	15 (5.2)	288 (100.0)
성별	남자	12 (8.8)	71 (51.8)	28 (20.4)	11 (8.0)	8 (5.8)	7 (5.1)	137 (100.0)
	여자	7 (4.6)	66 (43.7)	35 (23.2)	24 (15.9)	11 (7.3)	8 (5.3)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3 (9.7)	17 (54.8)	6 (19.4)	4 (12.9)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6 (13.3)	23 (51.1)	9 (20.0)	5 (11.1)	2 (4.4)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3.0)	13 (39.4)	8 (24.2)	8 (24.2)		3 (9.1)	33 (100.0)
	공과대학	2 (3.3)	28 (45.9)	17 (27.9)	4 (6.6)	6 (9.8)	4 (6.6)	61 (100.0)
	사회과학대학	2 (10.5)	8 (42.1)	2 (10.5)	4 (21.1)	1 (5.3)	2 (10.5)	19 (100.0)
	음악대학	3 (10.7)	13 (46.4)	6 (21.4)	2 (7.1)	4 (14.3)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16 (43.2)	7 (18.9)	4 (10.8)	4 (10.8)	5 (13.5)	37 (100.0)
	사범대학	1 (2.9)	19 (55.9)	8 (23.5)	4 (11.8)	1 (2.9)	1 (2.9)	34 (100.0)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학생상담센터 이용여부에 대하여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3-49-1>과 같다.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어서'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위치, 이용가능시간, 하는 일 등)' 17.4%, '주위에 친구, 선배 등 의논상대가 많아서'가 14.5%,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0%,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가 8.7% '지금은 이용 의사가 없지만 기회가 되면 이용할 마음이 있음'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단과대학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를 분석해보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부족과 상담실을 이용하였을 경우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센터에서 하는 업무 혹은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상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및 상담과 심리검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상담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담실을 방문하게 되지 않도록 상담의 효과나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9-1> 학생상담센터 이용 망설이는 이유

N(%)

구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용할 마음 있음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위치, 이용가능시간, 하는 일 등)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고생각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어서	주위에 친구, 선배 등 의논상대가 많아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타인의 의지 선행 때문에	기타	합계
전체	4 (5.8)	12 (17.4)	9 (13.0)	22 (31.9)	10 (14.5)	6 (8.7)	3 (4.3)	3 (4.3)	69 (100.0)
성별	남자	1 (3.8)	5 (19.2)	5 (19.2)	8 (30.8)	4 (15.4)	1 (3.8)	2 (7.7)	26 (100.0)
	여자	3 (7.0)	7 (16.3)	4 (9.3)	14 (32.6)	6 (14.0)	5 (11.6)	1 (2.3)	43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5 (100.0)
	문화콘텐츠대학				4 (57.1)	2 (28.6)		1 (14.3)	7 (100.0)
	테크노과학대학	1 (9.1)	5 (45.5)	1 (9.1)	2 (18.2)	2 (18.2)			11 (100.0)
	공과대학	1 (7.1)	2 (14.3)	3 (21.4)	3 (21.4)	3 (21.4)	2 (14.3)		14 (100.0)
	사회과학대학	1 (14.3)			4 (57.1)			1 (14.3)	7 (100.0)
	음악대학	1 (16.7)		2 (33.3)	3 (50.0)				6 (100.0)
	미술·디자인대학		3 (23.1)	2 (15.4)	3 (23.1)	2 (15.4)	2 (15.4)		13 (100.0)
	사범대학		1 (16.7)		2 (33.3)	1 (16.7)	1 (16.7)	1 (16.7)	6 (100.0)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받기 원하는 상담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표 3-50>과 같다. 응답자들이 가장 상담 받고 싶은 상담 내용으로는 '학업 및 진로'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부분(우울,불안,소외)이 15.6%, '자아탐색'이 13.5%, '대인관계' 6.3%, '성격관련' 3.1%, '학교적응', '행동 및 습관(주의집중곤란,강박적행동)이 2.8%, '중독(인터넷,알코올,게임)이 2.1%, '이성관계 및 성' 1.4%, '가족'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타 단과대학의 경우 '학업 및 진로' 상담이 1순위인데 비해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정서적 부분(우울,불안,소외)이 22.6%로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는 2019년 실태조사에서 상담받기 원하는 상담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본 결과를 2021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에 반영해서 학습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50>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고 싶은 내용

N(%)

구분	자아 탐색	학교 적응	학업 및진 로(취 업)	정서적 부분(우울, 불안, 소외 등)	대인 관계	가족 관계	행동및 습관(주의집 중곤란 ,강박 적행동 등)	성격 관련	이성 관계 및성	중독(인터 넷사 용,알 코올, 게임)	합계	
전체	39 (13.5)	8 (2.8)	150 (52.1)	45 (15.6)	18 (6.3)	1 (0.3)	8 (2.8)	9 (3.1)	4 (1.4)	6 (2.1)	288 (100.0)	
성별	남자	18 (13.1)	3 (2.2)	80 (58.4)	16 (11.7)	6 (4.4)	4 (2.9)	3 (2.2)	3 (2.2)	4 (2.9)	137 (100.0)	
	여자	21 (13.9)	5 (3.3)	70 (46.4)	29 (19.2)	12 (7.9)	1 (0.7)	4 (2.6)	6 (4.0)	1 (0.7)	2 (1.3)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 학	6 (19.4)	1 (3.2)	6 (19.4)	7 (22.6)	4 (12.9)		2 (6.5)	2 (6.5)	1 (3.2)	2 (6.5)	31 (100.0)
	문화콘 텐츠대 학	3 (6.7)	2 (4.4)	22 (48.9)	11 (24.4)	5 (11.1)	1 (2.2)		1 (2.2)			45 (100.0)
	테크노 과학대 학	4 (12.1)		21 (63.6)	5 (15.2)	1 (3.0)			2 (6.1)			33 (100.0)
	공과대 학	9 (14.8)	2 (3.3)	37 (60.7)	5 (8.2)	2 (3.3)		2 (3.3)	1 (1.6)	2 (3.3)	1 (1.6)	61 (100.0)
	사회과 학대학			15 (78.9)	2 (10.5)	1 (5.3)		1 (5.3)				19 (100.0)
	음악대 학	2 (7.1)		16 (57.1)	6 (21.4)	2 (7.1)				1 (3.6)	1 (3.6)	28 (100.0)
	미술.디 자인대 학	5 (13.5)	2 (5.4)	21 (56.8)	3 (8.1)	1 (2.7)		1 (2.7)	2 (5.4)		2 (5.4)	37 (100.0)
	사범대 학	10 (29.4)	1 (2.9)	12 (35.3)	6 (17.6)	2 (5.9)		2 (5.9)	1 (2.9)			34 (100.0)

학생상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3-51>과 같다. 학생상담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심리상담’이 27.1%, ‘진로적성특강’ 25.3%,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특강’이 10.4%, ‘대인관계 관련 특강’이 4.2%, ‘학생활지도 관련 조사 및 연구 활동’이 2.4%, ‘집단상담’이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다양한 심리검사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주변의 적극적인 권면과 상담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및 학생상담센터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1> 학생상담센터에서 기대하고 참여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N(%)

구분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	대인관계관련 특강	다양한 심리검사	심리및 정신건강관련 특강	진로적성예관한교육 및특강	자살에 방관련 교육	학생생활지도에관한 조사및 연구활동	합계
전체	78 (27.1)	5 (1.7)	12 (4.2)	79 (27.4)	30 (10.4)	73 (25.3)	4 (1.4)	7 (2.4)	288 (100.0)
성별	남자	4 (2.9)	7 (5.1)	29 (21.2)	9 (6.6)	37 (27.0)	4 (2.9)	3 (2.2)	137 (100.0)
	여자	34 (22.5)	1 (0.7)	5 (3.3)	50 (33.1)	21 (13.9)	36 (23.8)	4 (2.6)	151 (100.0)
단과대학	신학대학	13 (41.9)	1 (3.2)	2 (6.5)	8 (25.8)	2 (6.5)	3 (9.7)	1 (3.2)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9 (20.0)		3 (6.7)	13 (28.9)	8 (17.8)	11 (24.4)	1 (2.2)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11 (33.3)	2 (6.1)		10 (30.3)	2 (6.1)	7 (21.2)	1 (3.0)	33 (100.0)
	공과대학	18 (29.5)	1 (1.6)	4 (6.6)	15 (24.6)	4 (6.6)	16 (26.2)	1 (1.6)	61 (100.0)
	사회과학대학	3 (15.8)			3 (15.8)	4 (21.1)	8 (42.1)		19 (100.0)
	음악대학	8 (28.6)		1 (3.6)	5 (17.9)	1 (3.6)	11 (39.3)	2 (7.1)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6 (16.2)		2 (5.4)	13 (35.1)	5 (13.5)	10 (27.0)	1 (2.7)	37 (100.0)
	사범대학	10 (29.4)	1 (2.9)		12 (35.3)	4 (11.8)	7 (20.6)		34 (100.0)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되기 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표 3-5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18.4%로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으며, ‘진로적성탐색프로그램’ 17%, ‘자존감 증진프로그램’ 13.9%, ‘대인관계프로그램’ 9%, ‘의사소통프로그램’ 8.7%, ‘공감-감수성훈련프로그램’ 8.0%, ‘시간 관리 프로그램’ 7.6%, ‘리더십향상프로그램’ 5.9%, ‘이성교제’ 4.9%, ‘학습관련프로그램’ 4.5%, ‘분노조절프로그램’, ‘기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52>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설되기 희망하는 프로그램 N(%)

구분		공감 감수 성훈 련프 로그 램	의사 소통 프로그 램	리더 십향 상프 로그 램	대인 관계 프로그 램	분노 조절 프로그 램	스트 레스 대처 훈련	진로 적성 탐색 프로그 램	이성 교제 프로그 램	학습 관련 프로그 램	자존 감증 진프 로그 램	시간 관리 프로그 램	기타	합계
전체		23 (8.0)	25 (8.7)	17 (5.9)	26 (9.0)	3 (1.0)	53 (18.4)	49 (17.0)	14 (4.9)	13 (4.5)	40 (13.9)	22 (7.6)	3 (1.0)	288 (100.0)
성별	남자	18 (13.1)	9 (6.6)	6 (4.4)	13 (9.5)	3 (2.2)	15 (10.9)	29 (21.2)	11 (8.0)	5 (3.6)	15 (10.9)	11 (8.0)	2 (1.5)	137 (100.0)
	여자	5 (3.3)	16 (10.6)	11 (7.3)	13 (8.6)		38 (25.2)	20 (13.2)	3 (2.0)	8 (5.3)	25 (16.6)	11 (7.3)	1 (0.7)	151 (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8 (25.8)	2 (6.5)	3 (9.7)	2 (6.5)		7 (22.6)	2 (6.5)	2 (6.5)		3 (9.7)		2 (6.5)	31 (100.0)
	문화콘텐츠대학		5 (11.1)	3 (6.7)	7 (15.6)		10 (22.2)	6 (13.3)	1 (2.2)		10 (22.2)	3 (6.7)		45 (100.0)
	테크노과학대학	3 (9.1)	3 (9.1)		3 (9.1)	1 (3.0)	10 (30.3)	3 (9.1)	2 (6.1)	1 (3.0)	5 (15.2)	1 (3.0)	1 (3.0)	33 (100.0)
	공과대학	7 (11.5)	4 (6.6)	3 (4.9)	4 (6.6)	1 (1.6)	7 (11.5)	13 (21.3)	5 (8.2)	4 (6.6)	5 (8.2)	8 (13.1)		61 (100.0)
	사회과학대학	1 (5.3)	1 (5.3)	2 (10.5)	1 (5.3)		4 (21.1)	6 (31.6)		2 (10.5)	1 (5.3)	1 (5.3)		19 (100.0)
	음악대학		3 (10.7)		1 (3.6)		6 (21.4)	6 (21.4)	2 (7.1)	1 (3.6)	8 (28.6)	1 (3.6)		28 (100.0)
	미술.디자인대학	1 (2.7)	3 (8.1)	4 (10.8)	5 (13.5)	1 (2.7)	4 (10.8)	8 (21.6)		2 (5.4)	5 (13.5)	4 (10.8)		37 (100.0)
	사범대학	3 (8.8)	4 (11.8)	2 (5.9)	3 (8.8)		5 (14.7)	5 (14.7)	2 (5.9)	3 (8.8)	3 (8.8)	4 (11.8)		34 (100.0)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목원대학교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8개 단과대학 및 48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코로나 19사태로 전체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해 등교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은 각 학년에 ‘학생생활조사서’를 배포하여 응답자 전체 288명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응답자의 특성

첫째, 응답자의 성별과 종교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응답자 288명 중 남학생(137명) 47.5%와 여학생(151명) 52.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이 25.7%, 3학년이 17.0%, 2학년이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종교 중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1명으로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개신교(34.7%), 불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응답자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 중 ‘인문계고’가 249명(8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계고’와 ‘검정고시’가 10명(3.5%), 예체능계, 기타 8명(2.8%), ‘특수목적고’ 3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대전지역이 전체 조사대상의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지역이 23.6%, 경기/인천 지역이 20.8%, 전라도 지역이 11.1%, 경상도 지역이 6.6%, 서울 지역이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재수경험을 살펴보면 88.5%가 ‘재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3%가 ‘1년 재수’, 2.4%의 학생이 ‘6개월 재수’, 1.4%의 학생이 ‘2년’ 혹은 ‘3년 재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환경 관련 사항

첫째, 응답자의 현재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자택인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취(34%), 기숙사(19.4%), 하숙(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된 통학방법을 살펴보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보가 43.4%, 기타 4.5%, 스쿨버스 3.8%, 자가용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를 살펴보면 70.5%가 ‘부모’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학금’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11.5%, ‘본인’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8.7%,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6.9%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셋째, 재학생들이 현재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가정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곤란'의 문제가 30.6%, '부모의 간섭과 통제' '가족의 기대'가 3.5%, '부모간의 불화'가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활 관련 사항

첫째, 재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하고 싶은 일로는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폭넓은 대인관계'와 '전공공부'가 21.5%, '해외여행 및 연수'가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으로는 '전공의 성격과 학문 내용 및 전망'이 103명(3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및 취업정보'가 78명(27.1%), '학사 및 학점관리'가 42명(14.6%),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정보'가 34명(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편이다'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가 37.5%, '매우 만족한다'가 10.8%로 나타났으며,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타'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서' 30.4%, '학교 규모 및 시설 부족'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가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중 예상되거나 혹은 경험한 어려움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는 대학생활 중 '장래진로 및 취업'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64명(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점 등 학업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48명(16.7%), '없음'이 16%,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13.9%, '대인 및 이성 관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활에서 학교에 기대하는 부분은 '강의 내용 및 수업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64명(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 '취업 및 진로지도'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9명(17%),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12.8%, '교육시설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가 11.5%, '학교의 대외 이미지가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활에서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는 '하고 싶지 않음'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예·창작·예술분야'가 23.3%, '친목과 오락분야'가 14.6%, '체육 분야'가 13.5%, '종교분야'가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가운데 전공 교수님께 기대하는 점은 알찬 강의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및 취업상담과 지도 19.1%,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상담과 지도 15.6%, 인간적 관계 13.9%, 공정한 평가 9.4%, 연구 활동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부(과)에 대한 소속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이다'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편이다' 27.8%, '매우 높은 편이다' 12.8%, '낮은 편이다' 11.5%, '매우 낮은 편이다' 3.8%로 나타났다.

4. 학업 및 진로 관련 사항

학업 및 진로 관련 사항 중 전공학부(과)관련 사항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가 전공학부(과)를 선택한 동기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전망’이 11.1%, ‘자신의 성적에 맞아서’가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선택한 전공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는 ‘잘 알고 있다’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가 36.5%, ‘매우 잘 알고 있다’가 9.4%, ‘알지 못하는 편이다’가 7.3%, ‘전혀 알지 못한다’가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선택한 전공학부(과)에 대한 확신은 ‘보통이다’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고함’이 34.4%, ‘매우 확고함’이 18.8%, ‘확고하지 않음’이 6.6%, ‘전혀 확고하지 않음’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부(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1.9%,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가 18.1%, ‘불만족’이 5.2%, ‘매우 불만족’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하다’와 ‘불만족하다’에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는 ‘전망이 밝지 않아서’, ‘기타’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교수진에 대한 불만’이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부(과)가 맞지 않을 경우의 선택방법으로는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함’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직 모르겠음’이 21.1%,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기회를 살리도록 함’, ‘편입’, ‘기타’ 10.5%, ‘전과’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복수전공 및 편입, 자퇴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조사대상자의 복수전공이나 전과 의향에 대하여는 ‘없다’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 29.5%, ‘있다’ 1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수전공이나 전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는 ‘복수전공’이 91.9%, ‘전과’ 8.1%로 나타났다. 복수전공이나 전과의 이유로는 ‘폭넓고 다양한 공부를 위하여’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과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18.9%,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8%,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학과여서’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편입에 대한 고민을 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는 ‘아니오’ 66.3%, ‘예’ 33.7%로 나타났으며, 편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15.5%, ‘진로/취업의 문제’ 14.4%, ‘통학문제’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자퇴에 대한 고민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오’ 85.8%, ‘예’ 14.2%로 나타났으며, 자퇴에 대

해 고민한 시기는 '1학년 1학기'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학년 2학기'가 19.5%, '1학년 2학기'가 17.1%,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14.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로는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부적응' 19.5%,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진로/취업의 문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진로 및 취업 관련 사항

첫째, 응답자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결정함'이 57.6%로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정 못함'이 42.4%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결정에 확신이 없어서'가 27.9%,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9%,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계획대로 실천이 어려워서', '기타' 5.7%, '직업선택의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의 졸업 후 계획으로는 '취업'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진학', '각종 국가고시 응시' 19.9%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하기를 원하는 희망 취업 분야는 '각종 전문직(교직 포함)'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기관' 21.2%, '중소기업'이 15.6%, '대기업',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이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유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분야와 일치해서' 17%,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가장 바라는 점은 '기업정보 제공'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관련 자기이해(적성, 흥미검사)'가 19.8%,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가 12.8%, '학교 이미지 향상 및 홍보'가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취업관련 정보습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위의 선배' 16.7%, '학부(과) 교수'가 11.1%, '기타' 5.6%, '방송매체'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기 원하는 곳은 '학과(부) 교수'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진로센터 이용' 21.2%, '학부(과) 및 동아리 선배' 12.5%, '부모님이나 친지'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대상자들이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3학년 1학기'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1학기' 24.3%, '3학년 2학기' 18.8%, '2학년 2학기' 10.4%, '2학년 1학기'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학년이 시작하면서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42.8%로 나타났으며, 2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19.8%정도로 나타났다.

6. 일상생활 관련 사항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안'이 2.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무기력'이 2.26점으로 나타났고, '외로움'이 2.2%, '분노'가 1.9점,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1.29점, '자살시도'는 1.1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편임' 31.6%, '매우 만족' 11.1%,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8.7%, '매우 불만족' 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낮은 자존감'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18.2%,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15.2%, '성격에서 오는 어려움'이 9.1%, '자신감 결여'가 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에 대하여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표현하는 편임'이 33.3%, '잘 표현하지 못함' 18.1%, '매우 잘 표현함' 11.8%, '전혀 표현하지 못함' 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임'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7.2%, '매우 만족' 13.5%,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6.3%, '매우 불만족'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정도를 살펴보면, '자신감 결여'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외감과 고립감'이 26.1%, '표현력의 부족' 21.7%, '성격적 문제'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고민하는 문제는 '취업 및 진로문제'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문제' 15.3%, '경제문제' 12.5%, '학교적응' 4.5%, '대인관계문제' 4.2%, '성격문제' 3.1%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민이 있을 때 주된 의논상대는 '친구나 선배'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22.2%, '스스로 해결' 17.0%, '없음'이 8.7%, '형제자매 또는 친척'이 5.2%, '이성친구'가 4.9% 등으로 나타났다.

7. 성관련 사항

첫째, 응답자들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의 허용범위는 '성관계'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포옹'이 27.1%, '뽀뽀/키스'가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교)에 대한 생각은 '아름답고 자연스럽다'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 없다'가 28.5%, '어색하고 부끄럽다'가 16.3%, '기타'가 3.5%, '불결하고 혐오스럽다'가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전성관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가 24.7%,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20.8%, '절대 안된다' 18.4%, '결혼이나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대학입학 후 성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없다'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이 16%, '한 두번'이 9%, '자주'가 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시 피임(콘돔, 페미돔, 피임약 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번 한다'가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한다' 15.5%, '거의 안한다' 3.6%, '전혀 안한다' 2.4%

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동거에 대한 생각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가 31.6%,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26%,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9%, '동거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다'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할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 등) 경험을 살펴보면, 성적 괴롭힘 경험은 '없다'가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있다'가 5.2%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중 대학생할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한 성적 괴롭힘의 종류는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 언행', '집요한 연락',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성추행'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인 소문',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가 13.3%, '술 시중', '대가를 제공한 관계요구'가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할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을 경험한 장소로는 '술자리'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33.3%, '강의실' 13.3%, '도서관', '동아리방' 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자는 '동기 및 선후배'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0%, '교수'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대처는 '불쾌했지만 일단 참음'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선배 등)에게 상담',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의사를 밝힘' 20%, '일단 참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얘기', 13.3%, '교외관련 기관에 신고', '기타'가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내 성적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가 39.6%, '다소 심각하다'가 11.8%, '매우 심각하다'가 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괴롭힘(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모른다'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25%, '관련기관과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다'가 17.7%,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가 17%, 전혀 모른다'가 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희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의 내용으로는 '이성교제 시 성적 문제 대처방법'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특강'이 22.9%, '피임지식' 21.5%, '성병예방' 14.2%, '성역할', '기타'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8. 학생상담센터 관련 사항

첫째,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 인지도는 '잘 모른다'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그렇다' 29.5%, '전혀 모른다' 22.2%, '잘 알고 있다' 12.2%, '매우 잘 알고 있다' 4.5%의 순으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어서'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상담센터의 홍보부족'이 30.3%,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25.8%, '장소를 몰라서' 7.7%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상담 및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 '이용한 적 없다'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한 응답자들 중에는 '3회 이하'가 9.7%, '3~5회', '5

회 이상'이 1.4%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학생상담센터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필요하면 가겠다'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서 해결해보자 안 되면 가겠다' 21.9%, '마음은 있지만 쉽게 찾아가는 것 같지 않다' 12.2%,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가지 않겠다' 6.6%, '모르겠다'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학생상담센터 이용여부에 대하여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어서'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상담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위치, 이용가능시간, 하는 일 등)' 17.4%, '주위에 친구, 선배 등 의논상대가 많아서'가 14.5%,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0%,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가 8.7% '지금은 이용 의사가 없지만 기회가 되면 이용할 마음이 있음'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받기 원하는 상담 내용으로는 '학업 및 진로'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부분(우울,불안,소외)이 15.6%, '자아탐색'이 13.5%, '대인관계' 6.3%, '성격관련' 3.1%, '학교적응', '행동 및 습관(주의집중곤란,강박적행동)이 2.8%, '중독(인터넷,알코올,게임)이 2.1%, '이성관계 및 성' 1.4%, '가족'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상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심리검사'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심리상담'이 27.1%, '진로적성특강' 25.3%,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특강'이 10.4%, '대인관계 관련 특강'이 4.2%,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사 및 연구 활동'이 2.4%, '집단상담'이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되기 원하는 상담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18.4%로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으며, '진로적성탐색프로그램' 17%, '자존감 증진프로그램' 13.9%, '대인관계프로그램' 9%, '의사소통프로그램' 8.7%, '공감.감수성 훈련프로그램'이 8%, '대인관계프로그램' 9.0%, '시간관리 프로그램' 7.6%, '리더십향상프로그램' 5.9%, '이성교제' 4.9%, '학습관련프로그램' 4.5%, '분노조절프로그램', '기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단과대학별로 살펴본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 2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대학생활 및 학업과 관련된 사항, 정서·심리 및 의식관련 사항,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적 상태와 알 수 있었고 학생들이 전반적인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전반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면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토대로 이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졸업을 앞둔 졸업생까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 및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로의 나아감을 도울 수 있도록 진로 및 적성파악과 관련된 체계적인 준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상담센터에서 그동안 취창업지원단 소속이던 진로상담전담교수의 소속을 학생상담센터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진로적성상담 및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학생들이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위해 인성과 적성 및 취업,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서와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연속성을 위해 진로상담이 이루어진 이후 취창업지원단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의 길을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상호협력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정서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단 학생상담센터뿐만 아니라 부서 및 각 단과대와 학과별로 연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학교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정서와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으로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학은 코로나 19 이후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각종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학업시스템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학과가 연계하여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① 강의 내용 및 수업의 질 개선 ② 면학분위기 조성 ③ 교육시설 및 서비스 향상
- ④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⑤ 취업 및 진로지도 ⑥ 학교(캠퍼스)규모 확대
- ⑦ 우수교수진의 확보 ⑧ 교양 및 문학의 다양성 ⑨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 ⑩ 학생을 위한 상담지원 확대 ⑪ 기숙사 증설 ⑫ 기타()

17. 귀하가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는 어떤 분야입니까?

- ① 학술분야 ② 체육분야 ③ 종교분야 ④ 친목과 오락분야 ⑤ 봉사분야
- ⑥ 방송국 ⑦ 문예·창작·예술분야 ⑧ 사회정치·이념분야 ⑨ 하고 싶지 않다 ⑩ 기타()

18. 대학생활 중 학과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충실하고 알찬 강의 ②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③ 공정한 평가
- ④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상담과 지도 ⑤ 학생과 인간적인 관계 ⑥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상담과 지도
- ⑦ 학과 적응 및 개인적인 생활문제의 상담과 지도 ⑧ 기타()

19. 현재까지 소속학과에 느끼는 소속감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낮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은 편이다

《학업 및 진로》 다음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20. 귀하가 지원한 전공학부(학과)를 선택한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과 흥미 ② 성적에 맞춰서 ③ 주위의 권유나 압력 ④ 취업전망
- ⑤ 우수한 교수진 ⑥ 기타()

21. 귀하가 선택한 전공학부(학과)의 교육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알지 못한다 ② 알지 못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2. 귀하가 선택한 전공학부(학과)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확고하지 않음 ② 확고하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확고함 ⑤ 매우 확고함

23. 귀하가 선택한 전공학부(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하다 ② 불만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23번에서 ①, ②를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23-1. 소속학과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전망이 밝지 않아서 ③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교수진에 대한 불만 ⑤ 기타()

23-2. 선택한 학과가 잘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그냥 적응하도록 노력함 ②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도록 함
③ 본교 내에서 원하는 학과로 전과 ④ 졸업 전 또는 후에 국내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전과
⑤ 재수 ⑥ 해외대학 유학 ⑦ 아직 모르겠음 ⑧ 기타()

24.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24번에서 ①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24-1. 복수전공이나 전과 중에 어느 것을 할 의향입니까?

- ① 복수전공 ② 전과

24-2.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② 학과에 만족하지만 마음에 드는 또 다른 학과가 있어서
③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폭넓고 다양한 공부를 위하여
⑤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학과여서 ⑥ 기타()

25. 귀하는 편입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거나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5번에서 ①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25-1. 편입에 대해 고민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3순위까지 기재 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통학문제 ②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③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④ 대학생활 부적응
⑤ 종교문제 ⑥ 대인관계 ⑦ 진로/취업 ⑧ 경제적 문제 ⑨ 기타()

26. 귀하는 자퇴에 대해 고민한 적 있거나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6번에서 ①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26-1. 자퇴에 대한 고민을 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 ① 1학년 1학기 ② 1학년 2학기 ③ 2학년 1학기 ④ 2학년 2학기 ⑤ 3학년 1학기
⑥ 3학년 2학기 ⑦ 4학년 1학기 ⑧ 4학년 2학기 ⑨ 5학년

26-2. 자퇴에 대해 고민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통학문제 ②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③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④ 대학생활 부적응
⑤ 종교문제 ⑥ 대인관계 ⑦ 진로/취업 ⑧ 경제적 문제 ⑨ 기타()

27. 귀하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결정했습니까?

- ① 결정못함 ② 결정함

<27번에서 ①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27-1. 귀하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②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 직업선택 방법을 몰라서
④ 부모님과 의견 차이로 ⑤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⑥ 진로결정에 확신이 없어서
⑦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⑧ 계획대로 실천이 어려워서
⑨ 기타()

<27번에서 ②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27-2. 귀하는 대학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취업 ② 대학원 진학 ③ 각종 국가고시 응시 ④ 유학
⑤ 개인사업.자영업 ⑥ 결혼 ⑦ 군입대 ⑧ 기타()

28.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취업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공기업(공무원) ④ 방송, 언론계
⑤ 각종 전문직(교직포함) ⑥ 외국계기업 ⑦ 대학원, 유학 ⑧ 기타 ()

29. 위의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② 전공분야와 일치해서 ③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④ 보수(임금)가 좋아서
⑤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⑥ 취업하기 쉬워서 ⑦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좋을 것 같아서 ⑧ 기타()

30. 귀하가 진로/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진로 관련 자기이해(적성, 흥미 검사) ② 직업소개 및 구인정보 제공 ③ 각계인사 및 동문과의 만남 확대
④ 학교 이미지 향상 및 홍보 ⑤ 취업설명회 및 다양한 기업정보 제공 ⑥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⑦ 취업관련 외국어.자격증 특강 ⑧ 이력서 작성 및 취업면접 훈련 ⑨ 시설확충(도서관.영어.컴퓨터 시설)

31. 진로/취업에 관련된 정보습득의 경로는 주로 무엇입니까?

- ① 방송매체 ② 신문 ③ 취업관련 잡지 ④ 인터넷 검색 ⑤ 취업진로센터 이용

- ⑤ 경제적인 문제 ⑥ 성격문제 ⑦ 성.이성문제 ⑧ 정서적 문제
- ⑨ 건강문제 ⑩ 종교 문제 ⑪ 가정문제 ⑫ 기타()

39. 고민이 있을 때 주된 의논상대는?

-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또는 친척 ③ 친구나 선배 ④ 지도교수 ⑤ 성직자
- ⑥ 교내 또는 교외 상담소 ⑦ 인터넷 상담 ⑧ 스스로 해결 ⑨ 이성친구
- ⑩ 전문상담사 ⑪ 의논상대 없음

《성관련 문제》 다음은 성관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40.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허용하지 않음 ② 어깨동무, 손잡기 ③ 뽀뽀, 키스 ④ 포옹 ⑤ 신체 애무 ⑥ 성(교)관계까지 허용

41. 귀하는 성(교)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아름답고 자연스럽다 ② 어색하고 부끄럽다 ③ 불결하고 혐오스럽다 ④ 생산의 수단이다
- ⑤ 아무런 관심이 없다 ⑥ 기타()

42. 귀하는 혼전성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절대 안된다 ②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괜찮다 ③ 사랑하면 괜찮다
- ④ 결혼이나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 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43. 대학입학 후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 ① 없다 ② 한두 번 ③ 가끔 ④ 자주

〈43번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43-1. 성관계 시 피임(콘돔, 페미돔, 피임약 등)을 하나요?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가끔 한다 ④ 매번 한다

44. 귀하는 동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동거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다 ②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④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5. 대학생활 중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 등)이라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